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北韓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임진강 水攻은 對南 공격신호다

政治圈도 심각성 못느껴

지난 6일 새벽 북한은 황강댐문을 열어 4천만 톤의 물을 임진강으로 흘려보내 주말 피서객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았다. 상식 밖의 못된 짓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처사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지금까지 60년 동안 동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갖은 못된 일을 수천 번 저질러 온 북한이어서 이번 처사에 특별히 국민들이 더 큰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납치, 암살,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에게 국민들은 면역이 되어 있어서 또 한번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정작 한심한 것은 북한 행위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북한이 왜 수문을 열었는가를 놓고 왈가왈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과, 보상의 요구도 못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심하다'고 허탈해하고 있다.

6·25전쟁도 일요일 새벽의 '기습'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기습'이 아니었다. 많은 징후가 이미 나타났는데도 정부가 그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 놓고 앉았다가 기습을 당했었다. 10만이 넘는 공격군이 코앞에서 침공 준비를 마치고 공격선에 배치되었는데도 이를 감지 못하고 태평하게 손을 놓고 있다가 화를 당했었다.

북한은 아직도 '동반자여야 할 적'이다. 100만이 넘는 정규군을 서울에서 백리 거리에 배치해 놓고 언제라도 침공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수만의 병력을 우리 사회 속에 이미 침투시켜 놓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정치전과 군사전을 배합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내의 친북 단체를 앞세워 음모로 양으로 질서 교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기 위해 각종 유화적 제의들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쟁 중'이다.

임진강 수공은 북한이 우리의 경각심 수준을 측정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본격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바로 읽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또 한번의 6·25를 불러오게 된다.

승리를 확신하는 북한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실패한 국가', 그리고 국력에서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후진 약소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 해방'을 2012년(주체 10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호언하는 북한을 환상 속에 사는 불쌍한 존재로 깔보고 있다. 남북한 대결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싸

특별기고

李相禹

(서강대 명예교수)



政治-軍事戰 배합 南韓 교란 행위

6·25 전쟁도

많은 징후 외면한채

정신 놓고 있다가

일요일 새벽에

화를 당했었다.

움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아니다. 객관적 능력과 함께 싸우려는 의지와 힘의 운영 능력을 종합한 힘이다(Power=Capability X will X strategy). 종합된 힘에서 한국은 과연 대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대북정책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간의 첨예한 대립, 정부의 안이한 태도 등을 감안한다면 쉽게 한국이 우위에 서있다고 할 수도 없다.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정치투쟁 중심의 대남적화통 일정책을 구체화하였다. 1980년대의 10년간 한국 국민이 성취한 민주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민주정치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선거라는 경쟁을 통하여 정부를 장악하게 된다. 북한은 한국 내의 친북 조직을 지원하여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 자금, 조직, 그리고 대남정책조율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해주면 친북 후보는 다른 어느 후보보다 유리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까지 크게 성공해왔고 이제는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굳혔다.

조직된 소수가 분열된 다수를 이긴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역사상의 모든 제국은 내부 분열에서 붕괴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례에서 오늘의 한국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GDP는 한국의 4%에도 못 미친다. 인구, 과학기술 수준, 국제적 지지 등 모든 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표상의 우위에서 한국 국민의 오만과 방심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남남갈등'이라는 적전 분열을 겪고 있다. 휴전선 아닌 한국사회 전체를 전투장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공세에 한국이 대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언론이 나서야 한국을 구한다.

민주정치는 국민들의 감정적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전개된다. 정치는 무지한 국민의 정감적 사실 인식에 따라 낭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페론이즘이라고 하는 대중영합주의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전략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정치와 정책의 사이를 좁히는 것이 민주국가에서의 국가 전략의 성공 비결이다.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인식과 관계없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전략을 세울 수 있으나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성공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이 역할을 언론이 담당한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北韓을 어떻게 볼 것인가

言論은 北韓의도 정확히 알려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정보를 다듬고(refine) 핵심을 부각시키는 일(enlarge)을 언론이 담당한다. 일상에서 매어 국가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전문 지식을 가진 정보분석 전달 전문가인 언론인들이 국민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제된 정보, 사실에 근접한 정보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미국의 여론은 양분된다.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를 놓고 보수-진보적 성향으로 국민의 의사가 갈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한다.

그러나 미국의 안전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뜻을 모은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언론이 뜻을 모아주기 때문이다. 사실(facts)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언론이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면 국민 의식의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임진강 참사를 다루는 한국의 언론을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 언론인들의 책임 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의 핵심을 제쳐두고 이야기거리만 늘어놓는 언론 보도를 보고 과연 국민들이 '황강댐 수공'이 전하는 북한의 대남공세 징후를



북한 황강댐 방류로 홍수가 난 임진강(연합뉴스)

문제 핵심 제쳐두고 무책임한 얘기만 보도 국민 바른 인식 갖도록 정제된 정보 제공을

알아낼 수 있을까? 초기에 메시지를 잘못 읽으면 엄청난 재난을 기습처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 언론인들이 깨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사실 왜곡까지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법이 작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에 문학으로서의 역사가 있고 과

학으로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널리즘에도 문학적 저널리즘이 있고 과학으로서의 저널리즘이 있다. 문학으로서의 역사는 단편적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각, 창조하여 전한다. 독자는 이에 감동하고 작가와 같은 인식을 나누게 된다. 그 자체로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과학으로서의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그리고 모든 변수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낸다. 사실은 변할 수 없으므로 과학으로서의 역사는, 그 사실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는 역사적 진실이 된다.

민주정치의 약점은 정감적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집권할 수 있어 쉽게 대중영합주의에 휩쓸리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가안보정책을 대중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국가 멸망의 화를 자초하게 된다. 정책은 과학으로서의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세워져야 한다. 객관적 역사 인식을 가져야 상대의 기만전술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한 바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은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황강댐 수공의 메시지는 분명한데도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대중 선동적 내용을 무책임하게 신고 있다. 8월 29일에 있었던 똑같은 수공 연습을 보도한 미디어는 없었다. 임진강 수공으로 서울을 지키는 전방의 4개 사단이 고립되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오직 월간지 하나가 다루었을 뿐이다. 언론 지도자들의 안보 의식이 걱정스럽다. [4]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09년 大韓言論賞 공모 ... 12월 16일 시상

大韓言論人會는 언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09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선정 대상자를 접수, 12월초 시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12월 16일(수) '송년의 밤' 행사 때 갖는다. 심사대상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발표된 내용이다. 분야는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연구 등이며,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응모 요령

- 분 야 : 보도, 논평, 언론학술연구
- 대 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08년 11월 1일 ~ 2009년 10월 31일
- 구비서류 :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공적자료 1부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15일 오후 5시
- 시 상 : 2009년 12월 16일
- 접 수 처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 02-2001-7621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北韓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황강댐 방류 北책임 철저히 추궁을

9월 6일 북한은 임진강의 황강댐을 열어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시간 동안 4천만 톤의 물을 기습적으로 방류하여 강변에서 야영하던 남한 국민 여섯 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일을 놓고 남한에서는 고의적 수공(水攻)이었는지를 놓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병서(兵書)인 십통분류(十通分流)는 댐에 물을 담아 두었다가 일시에 방류하여 수몰시키는 '관수공법(灌水攻法)', 물줄기를 차단하여 가뭄을 유발시키는 '건갈공법(乾渴攻法)', 상류에 독극물을 풀어 하류국을 공격하는 '탁오공법(濁汚攻法)' 등을 모두 '수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이래 저수량 5억 톤에 달하는 다섯 개의 댐을 건설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8년에 완공한 황강댐이 저수량 3억 5천만 톤으로 가장 크다. 2000년 이후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것이 일곱 번이지만, 인명피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8월 이래 미국과 남한에 대해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 우리 국민은 더욱 혼란스럽다. 이 사태에 대해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런 저런 해석과 처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해 이번 일은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사태이기도 하지만 정작 짚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는 등 언론의 논의과정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적극적 수공과 소극적 수공

임진강 사태에 대해 현재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개진되고 있다. 첫째는 남한에 대해 유화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반응이 냉랭하다고 판단한 평양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류했다는 해석이다. 둘째는 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이며, 셋째는 평양정부의 대외 유화책에 불만을 품은 군부가 반발하여 저지른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실로는 임남댐과 마찬가지로 황강댐도 북한군이 건설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향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든 북한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떤 동기에서든 평양정부가 남한에 피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물을 방류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적극적 의미의 수공'에 해당한다. 이 경우라면, 북한이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한국사회 및 정부의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했을 가능성, 추후 수공에 준비하기 위해 발생할 피해의 정도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적 문제로 인한 것이

었거나 평양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군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댐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물자 부족으로 당장 보강공사를 할 처지가 못 되어 불가피하게 방류했다고 하더라도, 남쪽에 통보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인 방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특별기고



김태우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



위성지도에 나타난 황강댐 추정 지역(구글=연합뉴스) 사진상의 위쪽 원 표시부터 황강댐 추정지역, 군사분계선, 임진교 부근(5명 실종), 비룡대교 부근(1명 실종).

용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용통성 발휘와 사태의 엄중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맥락에서 세 가지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공유하천의 경우 상류국이 하류국과 상의없이 마음대로 물을 사용하거나 물을 이용하여 군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위배하는 일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상하류국들이 합의하여 하천을 이용한다. 남북한의 경우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지만, 국제관습법이 공유하천에 대해서 '제한적 주권영역(limited territorial sovereignty)'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주권국은 자국영토 내에 있는 하천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하류국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북한이 북한강과 임진강에 댐을 건설하여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법을 떠나 역사적으로도 상류국이 물을 이용하여 하류국을 위협하거나 하류국의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사실상 전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빈번했던

군이 입을 피해 등 '군사적 수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 그 자체는 불필요하거나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수자원 고갈'이라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점이나 수자원 고갈을 수공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분명 문제이다. 십통분류(十通分流)에도 건갈공법(乾渴攻法)이 중요한 수공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군사적 대비책 필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대비책은 대개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군사적 대비책이다. 군사적 대비란 언제나 만전을 기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실현성의 과소를 떠나 북한이 군사작전의 일부로 수공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975년 중국 허난성 홍수시 저수량 6억 톤의 반차오댐과 셔만탄댐의 연쇄붕괴로 9만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저수량 5억톤의 임진강 댐들의 군사적 위력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응댐 건설을 통해 기습방류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강산 댐에 대응하여 저수량 26억 톤의 평화의 댐을 건설한데 이어 임진강에는 저수량 7천만 톤의 군남댐을 건설하고 있다.

실제로 평화의 댐은 2002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방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력을 증명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적절한 대응수위일 수밖에 없으나, 향후 북한의 동향에 따라 피해 예상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비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도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군남댐의 저수량을 감안하여 증고(增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보다 앞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군사작전으로서의 수공 가능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여기에 매달리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작전으로서의 대규모 수공은 북한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데다 북한군의 기동성도 제약하기 때문에 전면전을 위한 수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역사적으로도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서 보듯 수공은 공자(攻者)보다는 방자(防者)의 수단이였다.

기술적으로도 북한의 댐들은 낙후한 기술로 건설된 사력댐들이 많아, 대부분의 경우 모든 수문을 한꺼번에 열 경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사실상 전쟁도발 국내외 규탄 마땅

통보를 기피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방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남쪽의 반항이나 피해정도를 알아보려고 했다면, 이 역시 '소극적 의미의 수공'이라 할 수 있다.

국경선 변경에 갈음하는 엄중사태

이렇듯 임진강 사태에 대해 어떤 경우든 북한이 책임을 면탈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두루 감안하여 필요한 만큼의

'물전쟁'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즉각 공군기를 동원하여 댐을 폭파했을 지도 모른다.

셋째, 상류국이 임의로 댐을 건설하여 하류국의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피해가 후세에까지 미치는 영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경선 변경에 갈음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군사작전을 위한 기습적 방류' 보다 더 엄중한 사태이다. 임진강 사태 이후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수공을 전쟁에 이용할 가능성, 한국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北韓을 어떻게 볼 것인가

水자원 고갈시키는 행위 대비할때

3면에서 이어집니다.

또한 피해지역에 주둔중인 군부대가 일시적으로 수몰된다고 하더라도 군사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공의 위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기술적 대응과 국제적 대응

둘째는 남북협력을 통한 기술적 대응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북한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임진강 사태의 경우 평양정부의 의도와 무관한 '기술적 사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의 댐들이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낙후한 기술로 증축적으로 건설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2002년에도 임남댐 상부에 함몰된 부분이 인공위성에 관측된 직후 한국정부가 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콘크리트 차단벽 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남북한 협력을 통한 기술적 대응은 원만한 남북관계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틀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상호협력이 가능해진다면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대댐회의(ICOLD)를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해두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협조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대비책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북한 댐의 붕괴 등 돌발사태 발생시 한국 측의 수몰지역 및

피해를 예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주민을 대피시키는 비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는 사태의 엄중성을 대내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일이다.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사태의 엄중성을 북한에게 뿐 아니라 한국국민에게도 설명해야 하며,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이슈화도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수자원관리 협력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한 합의제소는 불가능하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협의'를 권고하는 정도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제적 대응은 북한에 의한 수자원 고갈이 한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향후 남북협상에서 의제화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양보할 수 없는 국가자산

9월 6일 임진강 기습방류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인명이 희생되고 남한에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북한정부는 일체의 유감표시 없이 "댐의 수위가 높아져서 방류했다. 앞으로는 통보하겠다"라는 짤막한 한마디 만을 내던졌다. 입으로는 '우리민족끼리'를 말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듯 무신경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평양정부가 적극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른 군사적 도발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군사작전으로서의 수공 가능성에 지나치게 함몰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댐 시스템은 고의적 군사작전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술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군사적 수공작전이라 단정하기에는 수공작전으로 인해 볼 수 있는 이득에 한계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세는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많고 적음을 떠나 대내적인 군사적 대비나 기술적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일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수자원 고갈로 인한 국가이익 침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작전으로서의 기습방류만을 수공으로 보는 인식을 탈피해야 하며, 수자원 고갈 역시 광의의 수공으로서 오히려 더 영구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강 물줄기를 동해로 비껴가게 방류를 하고 있는 저수량 26억 톤의 금강산 임남댐은 진실로 한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파로호 이북의 북한강은 심각하게 고갈되었다. 이 댐이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할 2002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함

구했고,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 것이 될 것이므로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가 등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엄연히 다른 체제와 다른 정부 하에서 별개의 주권국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는 위험하리만큼 지나친 이상주의적 발상이며, 이런 논리를 두둔하면서 침묵했던 당시 정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딛고 있는 흙 한줌, 우리 강산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그리고 우리의 강을 흘러가는 한 흙의 물은 후세 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가자산으로 합부로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논리는 통일의 순간까지 유효해야 한다.

적극적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한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야밤에 물을 방류하면서도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남한국민을 죽게 한 행위는 정확하게 말해 짐승만도 못한 무도한 행위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민족끼리'를 운위하는 것은 언어도단 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스스로 국격을 부정하는 일이며, 북한이 이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달리 대접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임진강 사태의 본질이나 엄중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4]

지리산 자락서 체력 확인을 10월 건강포럼 함양 仁山家서 개최

대한언론인회 10월 건강 포럼은 지리산 자락의 함양 仁山家에서 체력단련을 겸해 개최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31일(토)

08:00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출발
12:00~14:00 함양도착(조선허 어탕국수/추어탕 소문난맛집) 식사 후 상림숲 관광(최치원선생 천연숲)
14:30~17:30 지리산 제1관문 오도재, 실상사, 벽송사 관광
17:30~18:00 인산가 연수원 도착 및 숙소 배정
18:00~19:00 김윤세교수 건강강의
20:00~22:00 저녁식사 및 다과
22:30 취침

▶ 11월 1일(일)

06:00~07:00 기상 및 자유시간
08:00~09:00 아침식사
09:00~11:30 오도재 - 인산가(6.6Km, 700m 임도) 트레킹 (트레킹 불참자 건강강좌 및 상담)
12:00~13:00 중식
13:00~14:00 죽염공장 견학
14:00 서울로 출발
18:00 서울 양재도착 (「갈비세상」에서 뒤풀이)

★회비 3만원

신청 10월 22일(목) 하루만 접수 (02-732-4797), 40명 선착순

9월 포럼 '노년기의 정신건강' 성황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매월 공동으로 열고 있는 건강포럼-

지난 9월에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완 비노기과'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나온 이운수 박사는 "노년기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우울증을 들 수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의 37%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12.7%나 되며 우울증으로 약물 처방을 받고 있는 노인이 2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우울증 치료가 늦어지면 고관절, 만성두통, 통증, 심혈관계 질환, 영양결핍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자살이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실례로 노인 자살이 전체 자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인구로 봤을 때 노인비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자살율 25%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우울증에 걸리지



이운수 비노기과에서 열린 9월건강강좌.

않기 위해서는 운동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건강 증진을 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집안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갖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모임, 취미클럽 가입, 세미나 참석, 특히 대한언론인회의 건강포럼 참석 등이 바람직하며 우울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약물 치료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1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참석 회우들은 모두 많은 회우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포럼이 끝난 후 참석 회우들은 뒤풀이로 시원한 생맥주와 프라이드 치킨을 들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4]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北韓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좌파 北 만행엔 왜 말이 없나

이 땅에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류들이 있다.

이른바 진보계열과 좌경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에는 아귀처럼 설쳐 대면서 북한의 만행과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은 방어리가 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꼬박 100일 밤을 촛불시위로 밤을 지새우며 쇠파이프와 죽창, 화염병으로 공권력을 공격하고 경찰차를 불태우는 등 당장 정부를 뒤엎을 기세로 무법천지를 연출하던 세계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위협에는 쥐 죽은 듯이 침묵만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뭔가.

미군 탱크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고 때는 전국적인 반미 촛불시위와 미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던 그들이 서해교전에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에 북한 기관포에 희생된 6명의 해군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조문은 고사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모임 한번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이번에도 북한은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댐 물을 무단방류해서 엄청난 양의 급류를 하류로 흘려보내 아영하던 우리 국민 6명을 수상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남쪽 사회가 발각 뒤집혔는데도 정부가 항의하자 겨우 보내왔다는 통지문을 보아 하니 너무도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답변이었다.

고작 “임진강 상류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서 긴급히 방류하게 되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알려 주겠다”가 전부였다. 아무 생각도 없이 여가를 보내던 선량한 남쪽 동포를 6명이나 숨지게

했으면서도 통지문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 흔해 빠진 외교수사인 ‘유감스럽다’는 표현조차도 쓰지 않았다. 이게 어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해명인가.

과거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절 우리가 흔히 불렀던 ‘북괴(北傀)’란 호칭이나 부시전 미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한 표현이 제격인 비인간

時論



지용우

· 본보 편집고문
·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反정부 시위때 ‘악마’로 北韓엔 ‘천사’로 “서울 불바다” 협박때도 항의한 단체없어

집단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런 자들이 특하면 들먹이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니 소도 웃을 노릇이다.

이럴 때마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 진보 좌익세력들의 거동이다. 입은 빠풀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엔 저들도 북한의 결정적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 한마디 쏘는 있겠지, 하는 기대를 ‘혹시나’ 하고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역시나’로 끝났을 뿐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 했던가.

1994년 3월9일 우리는 서울에서 열린 남북특사교화를 위한 실무접촉 테이블에서 당시 북측 단장으로 참석한 박영

수라는 자로부터 소름끼치는 소리를 들었다. 회의를 자신들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자 느닷없는 폭탄선언을 했다. “서울이(북한서) 머지않아요.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남측 대표를 향해)당신도 살아남지 못 할 거요” 그 뒤에도 북한의 유사한 대남 협박은 거듭되었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공격징후가 있을 경우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진보 좌경단체들은 벌집 쏜신듯 들끓었다. ‘그럼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호전적인 합참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와 합참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국방부 청사 정문앞 등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성토장에는 민가협을 비롯 범민련, 평통사등 다수의 진보단체들이 합류했다. 그런데 북한대표가 서울서 행한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는 초대형 협박공갈이 보도되었을 때는 이들 중 어느 한 단체도 하나 같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국적인지 북한이 남한에 박아놓은 대남 선동단원인지 알쏭달쏭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밥 먹듯이 입에 담는 핵 협박이나 서울 불바다 협포는 로맨스고 우리가 어쩌다 ‘핵공격징후’를 전제로 한 방위전략상의 상응하는 발언은 불륜으로 들리는가? 북측의 대형 댐의 무단방류로 여섯 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이 수장된 이번 사건이 일어났어도 이들중 어느 누구도 피켓을 들고 북한을 규탄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처럼 사상과 이념이 지극히 불투명한 인간들 하고 대한민국의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함께 쉬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이 짜증날 따름이다. 쓰레기 분리작업처럼 사람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한겨레]

남설악으로 모십니다.

본회 산악회 10월 28일 가을산행

단풍의 계절 10월입니다.

본회 산악회는 가을산행을 10월28일(수요일)남설악 흘림골과 주전골의 수정처럼 맑은 계곡과 암봉이 흐르는 계곡 따라 단풍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초대합니다.

10월 맑은 가을 하늘을 맞아 바쁘시더라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10월28일(수) 오전 7시30분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앞(동백관광버스) 출발

오전 7시20분까지 탑승(시간 엄수)

△산행코스 : A팀 등산코스 = 흘림골 → 오색약수터 (3시간여 소요)

B팀 관광코스 = 오색 → 주전골(2시간여 소요)

△신청마감 : 2009년 10월23일(금)까지 (선착순 40명)

△준비물 : 간식, 음료수등 각자 준비

△회비 : 1인당 2만원

△연락처 : 본회 사무국 02-732-4797(주소영)

산악회 총무 011-443-0063

※ 산행뒤 뒤풀이 = 오색 관광단지 식당



흘림골 계곡에서 바라본 단풍이 물든 서쪽 암봉 모습.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北韓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익은 민족-젊은이 탈환해야 한다

금강산에서 사람이 피격되어도, 임진강에서 사람이 익사해도 이 정부의 對北 요구는 '사과'가 고작이다. 그 고작마저도 된 일이 없다. 自國民이 敵에 의해 살해됐으면 응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마땅한 응징방법이 없다고? 10년간 퍼주기를 해서 핵무장까지 도와놓고 응징방법이 없다는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도 사건만 나면 '당당'하게 대응한다. 참으로 이상한 '당당'이다. 이번에도 '人命에 대한 北의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것 같다'는 한가한 소리만 했다.

DJ장례식 때에도 그랬다. 북한의 조문사절이란 것이 亞太원가 하는 연구소를 통해 入國의사를 전해왔다. 이레가지고는 主權國家라고 할 수 없다. 그나마 청와대 면담을 하루 늦췄다고 무슨 대단한 위신을 세운 양 하니 어처구니없다. 그것도 별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기묘한 나라가 이 나라이다. 언론은 임진강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 이른바 '진보' 신문은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기 짝이 없다. 이른바 '보수' 신문도 뜻뜻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가해자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안보를 보다 구조적으로 성찰하기 보다는 이쪽의 책임소재 규명에 흥미만 표시하고 있다. 북의 대포 소리 몇 방만 들리면 경제가 와르르 할 나라가 이 나라이다. 停戰體制는 사실상 戰時體制이다. 戰時體制의 나라가 安保에 이렇게 무신경하고 태만하면 이미 '정신나간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精神逸脫의 다음 단계는 육체의 소멸이다.

1999년 싱가포르의 이광요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구스도르'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제1차 IMF파동으로 거덜이 난 상태였다. 구스도르는 지난 인도네시아의 정치를 이렇게 회고했다.『초대대통령 수카르노는 여자에 미쳤었고, 두 번째 수하르토는 돈에 미쳤었다. 세 번째 하비비는 그냥 미쳤었다.』『그럼 당신은』하고 누가 물었다. 『나요, 나는 演技에 미쳤어요.』(이광요 회고록) 그는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과 함께 모든 세력이 일제 발호한다는 통에 자기는 훌륭한 연기로서 난국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정부는 최대의 과제였던 좌경청산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느 날 中道를 선언했다. 중도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의 中道는 기회주의(연기)밖에 안된다. 이런 가운데 좌우갈등은 계속중이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우익은 魂이 없다. 우리의 좌익은 철부지(명확한 목적을 가진 從北기회세력을 제외하고)이다. 그리고 실례되는 얘기지만 가진 자는 '돈독'이 올라있고 못가진 자는 '어거지'를 주특기로 삼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풍조가

그렇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우익의 관심은 '國家間 不平等關係'에 두어져야 한다. 外部指向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모든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그러했다.

이점이 '階級不平等'에 초점을 맞춘 좌익과 우익의 차이이다. 때문에 우익의 관심은 國力の 擴大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체제의 개혁에 있다.

時論



金哲

· 본보 편집위원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政權의 보디가드 역할만 해선 안돼 左傾청산 함께 安保 불감증 씻어야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1936년 日本에서 2·26사건이 일어났다. 思想家 北一輝의 저서『國家改造案大綱』에 고무된 청년장교들의 쿠데타였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의 취지는 대륙으로 뻗기 위해 日本의 부패한 내부구조를 혁파한다는 것이었다. 滿洲國을 사실상 창설한 石原莞爾도 장래 미국과의 최종전쟁을 위해 10년을 준비하자면서 만주국을 운영하고자 했다. 이것이 우익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익은 단순히 체제나 정권의 보디가드(Bodyguard, 경호원) 역할을 하고 있다. 좌익은 기본적으로 反體制 전복세력이다. 우익도 영 아니다 싶으면 때에 따라서는 反體制 反政權도 사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전복세력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진정한

우익이다.

한편 좌익은 기본적으로 內部指向的이다. 이제는 좌익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의 구호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오히려 '資本을 世界化하고 勞動은 地域化'하는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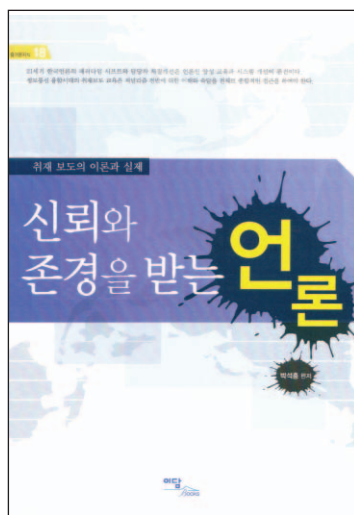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좌우익의

보를 大權에 두 번이나 공천했었다. 이 정권 들어 고위직 청문회를 열었다하면 재산비리나 병역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력은 같은 理念의 동아리가 아니라 국회의원 지망생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正體性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하니 젊은 이들이 좌경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아니 끌 수 없고, 젊은이들이 한탕주의 拜金主義에 아니 빠질 수 없다. 한편 좌익은 철부지이다. 그들은 국가의 운명도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있다. 6·15선언 때에 金正日의 앞에서 詩를 낭송하고 통일의 노래를 합창하지 않았던가. 조선노동당이 남한을 赤化하면 어떻게 될까. 우익은 즉각 처형될 것이고 좌익은 몇 달간 이 용된 후 思想改造를 위해 '수용소군도'로 보내질 것이다. 어쨌든 國家觀이 다른 좌익의 얘기는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상황에서 우익은 진정한 우익으로 거듭나야 한다. 半島的思考에서 벗어나 思考의 地平을 전 세계로 넓히는 國家戰略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당면한 좌익과의 사상논쟁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훨씬 높고 넓은 시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경사상에 감염된 젊은이들을 재탈환할 수 없다. 신세대의 탈환 없이 우익도 국가도 성립할 수 없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한일월드컵에서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는 외부지향적 목표가 제공될 때 모든 국민이 단결하고 젊은이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중대한 증좌이다. 우익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우익이 제대로 서면 정치세력화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매년 Beauty Contest(미인대회) 같이 열려온 大選에 도전해 볼직도 하다. 성공 못하더라도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박석흥 회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

박석흥 회우(건양대 겸임교수·본보 편집위원·문화재위원)가 '취재 보도의 이론과 실제-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을 펴냈다.

이 책은 33년간의 신문 제작 및 문화일보 고급지 개선작업 경험과 언론학부·대학원 학생들과 8년간 토론하고 강의했던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바른 언론의 기본인 취재 보도 방법을 정리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새 언론의 기본 방향 설정을 제시한다.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언론의 공정 보도와 진실 추구가 이 시대 어젠다가 된 상황에서 저자는 기초적인 신문방

송 제작 원칙 준수와 언론 윤리 확립을 강조했다.

한국언론의 정파지널리즘을 분석·비판하며 참언론인을 지망하는 젊은 언론 학도들에게 취재, 기사 작성, 신문·방송 제작과정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숙달시키는 것을 제일 목표로 했으며, 신문·방송 뉴스 기사, 심층 분석 기사, 의견 기사 쓰기와 인터넷·잡지·출판·광고 PR 선전 분야의 글쓰기도 다루었다. 신문·TV·방송 등 대중매체의 윤리 확립과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언론역사와 특수지널리즘의 변화과정도 일별했다.

韓-日관계 새로운 地平 열릴까

한국민들은 역대 어떠한 총선보다도 얼마전 일본총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55년만에 일본의 극적인 정권교체를 보면서, 한국민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점을 새삼 깨닫고 있다.

특히 일본 민주당은 선거공약에서 한국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표방했고 양국관계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온 과거역사 문제에 있어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 민주당정권 등장에 대해 한국민들이 높은 기대감을 갖는 까닭이다.

90년대 들어, 한일관계는 악순환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이후 한일관계는 예외없이 한국의 신정부 등장할 때마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고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양국의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지만 2, 3년후 역사·영토문제로 관계가 악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사회의 보수화에 따른 교과서 개정 움직임과 관련, 역사·영토문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이에 한국정부가 대일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한일갈등이 증폭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한일관계의 동일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를 표명했지만, 일본은 한국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사문제로 한국을 자극했다. 더욱이 한일간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역사·영토문제로

틀어진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였다.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현재 신시대 관계로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이다.

그러나 한일의 불행했던 역사문제는 대처 여하에 따라 여전히 양국관계를 원점

특별기고



윤덕민

· 외교안보 연구원 교수

한일병합을 찬미하는 발언이 제기될 경우 한국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여 한일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2010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독도문제가 불거진다면, 극도의 갈등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2010년’을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새로운 한일

사회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다면,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한국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2010년은 불행했던 한일 과거역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민주당은 납치문제의 틀안에 갇혀있는 대북한 정책에 있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북한의 김일성은 최고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에 접근하여 대규모의 원조를 얻는데 성공한다.

북한은 민주당정권의 실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은 가네마루 부총재의 방북 당시 동행했던 인물로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굳건한 국제공조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화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압박도 병행해야한다는 점을 민주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는 아시아 중시에 입각,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된 적이 없지만, 공동체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EU와 같이,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공동체로 나가는 비전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

日 민주당 정부 출범 前向的인 자세 기대 歴史-영토 문제 악순환 고리 끊을지 관심

으로 돌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2008년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문제로 한일관계는 한차례 소동을 겪은 바 있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총선승리를 축하하는 이명박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역사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정당임을 전했다.

특히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강조한다. 민주당정권의 등장은 한일관계에 있어 악순환의 패턴을 선순환 구도로 전환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10년은 한일 강제 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다.

강제 병합 100년의 의미를 두고 한일양국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내 우익세력, 특히 유력정치인들이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0년 문제에 있어 가장 일차적 방안은 예방적 관리로서 어느쪽이든 역사·영토문제를 제기하여 쟁점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불가능하게 하고 한일양국에게 공히 손실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여 가급적 역사·영토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는 지혜를 한일양국의 정치권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거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일본 민주당 정권의 출범은 예방적 관리를 넘어 악순환 구조를 깨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기대된다.

2010년에 즈음하여, 민주당 정부가 한일병합과 식민지배에 대한 진솔한



전민조 회우 사진집 '농부'의 표지

전민조 회우 사진전- 사진집 발간

전민조 회우(전 동아일보 출판 사진 부장)가 그의 여덟 번째 사진집 '농부(農夫)'를 펴내고 지난 9월 10~23일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갤러리 M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사진집에는 1982년 여름 지리산자락의 남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늙은 농부의 쟁기질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을 중심으로 전국 농촌을 돌며 찍은 사진을 담고 있다. 25년의 시간이 흐른 2007년 11월



전민조

그 농부를 다시 찾아 나선 전 회우는 1994년 교통사고로 그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을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9월 10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는 사진계의 거목인 분회 윤주영, 이명동 회우 등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특히 모델이 된 농부 모

재환 씨의 장남 모정식 씨 등 유가족이 자리를 함께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내일을 만드는 약속"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금융위기 出口전략 어떻게 짤까

2008년 9월15일 미국의 투자은행 (IB)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막을 올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불린 1년이 지난 현재 세계경제는 불황의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해 아직도 '위기 진행형'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용 등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회복단계에 들어서 최악의 위기국면은 벗어났다는 진단이다. 그런가 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대비해 경기부양책을 거둬 들여야 한다는 출구전략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부문에서 주요국의 주가는 사태 이전에 비해 80% 수준 이상, 그리고 외화유동성은 완전 회복 했다는 분석이다. 실물경제도 제조업생산의 경우 최악에서 벗어나 감소폭이 축소되고 소비도 축소폭이 감소하거나 증가세로 돌아서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라는 것.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추가 재정 여력이 약화한 상태며 무엇보다도 미국의 주택시장과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위기 재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뚜렷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각국 경제의 공통적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주가는 작년 8월말 코스피지수 1,474이던 것이 2개월이 지난 10월 24일 938까지 폭락했다가 2009년 9월18일 현재 1,700선에 접근해 완전 회복하고도 더 폭등한 상태다. 대미 달러 환율은 작년 8월말 미화 1달러에 1,089원이던 것이 올들어 지난 3월2일 1,570원까지 치솟았다가 1,200원선까지 내려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지난 2분기 실질국민소득(GNI)이 1분기보다 5.6%늘어나 지난 1988년 1분기 6.2% 이후 21년여 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실질국내총생산(GDP)도 2.6%증가, 2003년 4분기이후 최고였다. 제조업생산증가율(8.9%)을 비롯, 설비투자(10.1%) 수출(14.7%) 민간소비(3.6%)가 모두 전분기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아시아 4번째 경제대국으로 다시 활보를 시작하고 외환보유액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경제회복수준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전략 이상으로 높아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0.8%로 높이고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내년엔 3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다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영국의 피치사는 한국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조정, 작년말 이후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춘 37개국중 등급전망을 다시 높인 나라는 한국과 우루과이 뿐이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인 나라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이같은 경제회복 속도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노력등 정책적 효과가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러나 경제회복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경제기구가 지적했듯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이 빠른 경기회복세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는 영국 피치사의 평가와는 달리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들어 당장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일본이 200%에 육박하고 미국이 70%, 유럽의 선진국들이 60~70%수준. 우리나라는 36% 수준으로 이들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각국의 총금융

時論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자산(미국 56조 달러, 서유럽 43조 달러, 일본 19조 달러)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겨우 1조5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아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자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점도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걸림돌이다. 7월의 기업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실적은 1년전보다 7.3% 늘었지만 민간부문은 33%나 감소했다. 지난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6% 늘었다고 하지만 1년전에 비해선 2.2% 감소했

으며 제조업생산도 -7.3%, 설비투자는 -15.9%, 민간소비 -0.8% 감소한 상태여서 침체국면을 벗어났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특히 각국이 다 그렇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난제의 하나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8월 현재 3.7%로 30개 OECD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 하지만 청년(15~29세)실업률은 8.5%에 달해 작년 8월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의 43.6%가 이들 청년실업자이며 20대 실업자중 대졸자가 52.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환보유고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도 안심할 일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작고 선물환 거래시장에서 역외세력 비중이 높아 투기세력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올들어 외국인의 국내주식매입자금이 25조원을 넘어 주가가 51%나 올랐다. 이들 외국인 자금 가운데는 핫 머니가 많아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것처럼 단기자금의 폐해를 재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한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밖에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아 내수를 일으켜야 한다든가, 원화가치 절상추세에서 환율효과가 소진됐을 때의 수출문제, 지지부진한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주요 변수의 하나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에선 회복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경제회복을 자신하는 낙관론과 더블 딥(double dip,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강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비판론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는 제로(0) 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및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소비와 투자가 민간 자생력으로 회복하는 단계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만만치 않다. 미국을 비롯, 주요 국가가 경기부양에 쏟아 부은 돈이 2조4천억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이 각 8천억달러, 중국 6천억달러, 독일 1천2백억달러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논란이 더욱 불거지는 양상이다. 위기 국면에서 사용했던 대규모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이후 국가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경기회복이 되면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미리 탈출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선 주택가격이 다시 뛰어올라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도 외국인 자금이 몰려 주식값이 급등하고 일반 소비자물가가 올라 경제의 버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동결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쳐 출구전략을 서서히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금리인상등 출구전략 이행은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세를 보아 그때가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출구전략의 이행시기를 놓고 앞당기느냐, 아니면 신중을 기해 가급적 늦추느냐 하는 문제로 엇갈리는 상황을 보이는 셈이다. 어느 쪽이 되든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의 시그널은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인식공유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동조화가 주요 변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K]

경제주체 인식共有 여부가 판단기준 美國등 주요국가 정책 同調化가 변수

改閣보도 지나친 ‘출신지역’ 타령 눈총

1945년, 3천만 동포가 조국광복의 환희에 들떠 있을 때 古堂 曹晩植선생(독립운동가, 교육자)은 뜻밖에도 “동포여러분! 이제 고향을 묻지 맙시다.”라고 사자후를 토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견지명인가. 그 령잖아도 파당 짓기를 좋아하는 국민성이 이제는 또 어떤 모양으로 편 갈라 국력을 소모할지 걱정스러워한 선각의 말이다. 白凡 金九선생이 48년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남쪽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북녘의 동포를 버리고 나 혼자 갈 수 없다’며 고사했던 古堂의 애국애족정신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한 마디다.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이 통례다. 고향 하늘, 고향 친구, 심지어 고향 까마귀에게서라도 어렸을 적 고향 내음을 추억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니 고향을 들먹이는 것이 결코 탓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사사건건 출신지역과 고향을 쟁하고 따져서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은 역겨움에 앞서 악폐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다소의 지역갈등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의 극단적인 양태와는 다르다. 특히 당 정 군은 물론 법조계 학계까지 편만한 출신지역 분별은 그 도가 지나쳐 가히 망국의 단계에 이르렀다. 흑자는 서구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이라느니, 일부 정치지도자의 욕심에 그 원인이 있다느니 하고들 판전을 피우지만 발생 원인이라 어찌되었든 이를 묵인하고 나아가서 부추기는데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언론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최근의 지면만 살펴봐도 쉽게 수궁할 수 있다. 9월3일 단행된 총리를 포함한 개각소식을 전하는 4일자 각 신문은 하나같이

“16개 부처 장관(후보자 포함)의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TK) 출신이 3명, 부산·경남(PK) 출신이 2명으로 영남 출신은 모두 5명이다. 호남과

충청 출신이 각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라고 전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자질과 능력이 인정되어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것인데 ‘출신지역’이 왜 중요한가. 판을 짜다보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섞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출신에 다소 편중될 수도 있다.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라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경우 15일자 3면 머리기사로 다룬 뉴스분석에서 “이번 인사에서……지역도 경남 충북 강원 전북 경기 경북 출신을 고르게 안배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다.”라고 심층 분석(?)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안배만 되면 무난한 인사라는 딱 막힌 사고에 혀가 내돌린다. 용인술은 비단

을 감안,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교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선 9/6, 100자평), “호남 법무장관 청문회… 민주당은 부드러웠다.”(중앙 9/18) 등의 감상적이고 표피적인 기사가 넘실대는 것은 ‘선배들의 의식이 그랬으니 내가 따라한들……’하는 안이함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공식이던 국세청장에 임명된 백용호 공정거래원장은 함께 임명된 천성관 검찰총장과 “같은 충남출신으로서 이해적”이라는 게 당시 언론의 평이었다. 천총장의 고향은 논산, 백청장은 보령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보령 사람들은 백청장을 향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어렸을 적 잠시 한 두 해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을 뿐 혈액도 인맥도 학맥도 없는데 왜 충남인으로 분류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우리가 균형과 안배를 들먹이는 출신지역이라는 게 이렇다. 필자처럼 부친의 원적이 전북 부안이면 호적을 파오고 타지에서 50여년을 살아도 여전히 부안출신이다. 내게는 자랑스러운 부안이 출신지역이어서 고마운 일이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래도 기어이 출신지역을 따져서 균형 운운(종게 말해서 균형, 나쁘게 말하면 편 가름)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누가 있어 언론의 고집을 꺾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록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지역적으로 기상과 말씨와 풍속이 조금씩 달라 기호 영동 영서 영남 호남 호서 등으로 나누어 특색 지운다. 요즘은 뭉뚱그려 서울경기지방 영동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 중부지방으로 대분한다. 지역과 지방에 따른 차이는 그 지역의 특징과 특색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가꾸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편 가르고 헐뜯을 조건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제 고향을 더 묻지 말아야한다. 애써 감추라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지 말라는 뜻이다. 언론이 억지로 따지지 않고 꼬집지 않으면 갈등과 감정은 금방 사그라지고 다시 싹트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만 잘하면 말이다. [필자주]

“고르게 안배해 무난한 人事”등 논평 후보자 자질-능력 심층 검증은 소홀

전체의 살림을 하는데 꼭 출신지역 안배가 필요한 것처럼 신문이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상투적이고 노골적인 출신지역 타령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 회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당사자의 따끔한 핀잔을 받아야 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고 충청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충청도 총리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총리지.” ‘자신이 충청도 총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철부지 같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같은 출신지역 추적과 안배 여부에 대한 언론의 과민한 시각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군 대장급 인사(9/14)에 대해서도 막무가내였다. 당사자인 국방부는 “이번 진급과 보직 인사 기준은 오직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과 전문성, 추진력,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작전적 식견 등이었고 이에 따른 책임자를 선발했다.”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의

전쟁의 승패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한 치의 빈틈도 용납될 수 없는 국방인사에 영남이니 호남이니 하고 수적안배에 비중을 두다보면 어찌 최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인가. 설사 국방당국자가 지역안배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말하더라도 그릇된 발상이라며 나무라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지역안배가 잘 됐으며 역지장단으로 추임새를 넣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9월 한 달 내내 신문지면을 장식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관련기사는 각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입장이 마치 자기들의 기반이라고 여기는 지역출신이나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일삼았다. 일부 유력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후의 정치판도, 심지어는 대권구도와와의 연관에 측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충청출신 총리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지나칠 경우 지역에서 반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전립선 무료검진 다시 실시합니다

11월 21일... 암 조기 발견 · 질환치료기회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위한 2차 전립선 무료 검진행사가 다음달 11월21일(토)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12층에서 열린다

(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회장: 권성원) 주최로 실시되는 전립선 질환(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등)검진은 협회장인 권성원 박사와 비뇨기과의 명의인

중앙대학교 병원의 김세철 박사를 비롯해 현재 대한언론인회의 건강포럼을 맡고있는 이운수 박사 등과 중앙대학교 병원 비뇨기와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한다.

검진일인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 검진에 들어가며 아울러 9시부터는 전립선질환 강

좌도 있으며 12시에 모든 검진이 끝나게 된다.

검진은 배뇨장애 증상지수 체크와 설문지 작성등 문진으로 시작되며 경직장 전립선 촉진, 격직장 초음파검사, 혈액체취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 상담 후 전립선약 무료제공 순으로 진행된다.

작년 12월에 처음 실시된 전립선 검사에는 모두 164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이가운데 5명의 전립선 초기의 암환자가 발견되기도했으며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전립선관리협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약을 타가기도 했다.

11면에서 이어집니다.

‘추적 60분 - 등록금’ 감성적 접근에 치중

요즘 대학생들에게 우골탑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느낌을 줄까? 과연 그 뜻은 무엇인지 이해할까. 50~60년대에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에게는 牛骨塔이나 入住課外 등은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단어들이다.

戰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웠던 시절, 농촌출신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르바이트는 입주과의였다. 중고교생집에 입주해 학업을 도우면서 숙식을 해결했고, 등록금으로는 소를 몇마리 팔아와서 납부해야했던 경험은 필자만의 것은 아닐것이다.

70~80년대에 들어와 해외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던 미국에서는 여름방학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혹 결혼한 대학원생들의 부인들은 몰래 중국집 주방에서 접시닦이를 하면서 남편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다. 그들이 졸업후 귀국해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자못 컸었다.

그렇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어떨까. 경제사정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학업을 계속해야하는 대학생들이 적은 숫자는 아닐것이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텔레비전 전파를 뒀다.

KBS는 “천정부지 등록금. 후불제가 해법?”(9월18일밤10시,추적60분)이란 프로를 통해 대학등록금에 얽힌 신용불량자 양산문제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등록금 후불제의 문제점 등을 심층취재, 보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한 등록금후불제(졸업후 취업한뒤 학자금을 갚아 나가는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등록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몰린 학생들의 실태, 그리고 건설현장과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프로였다.

추적60분은 현장취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학생과 “키스방”까지 찾아가 고객들에게 키스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들의 실태까지 소개했다. 이 프로는 지난 9월까지 등록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이미 1만 3천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또한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되더라도 졸업까지 4년간 4천여만원을 대출받는다면, 갚아야 할 돈이 이자까지 6천9백

여만원으로 늘어나 취직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프로는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현실적인 대안제시에는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등록금때문에 자살한 대학생의 아버지 인터뷰나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대생의 인터뷰,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프랑스대학생의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것은 피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인 해법이나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지원을 대폭 확충해야하는 것이 마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보이는 낚임스의 접근은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서민을 위한다며 입으로만 외치던 포퓰리즘적인 정책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민해봐야 한다.

대학졸업이 우리사회에서 아무리 필수요건이라 하더라도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할것이다.

정치적구호 방송논란

지난달 KBS 뮤직뱅크의 돌발적인 생방송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MBC의 무한도전이 정치적인 슬로건을 PPL로 내보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PPL이란 드라마나 오락 등 TV프로그램에 자사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간접 광고방식을 말한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구호의 노출로 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MBC의 “무한도전”은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정치적인 구호가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5일 방송된 무한도전 169회 프로에서 출연자들의 뒤쪽 벽면에 “언론악법 분쇄하고 언론자유 지켜내자”라는 현수막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이에대해 방개혁(대표 김강원)은 9월 9일 논평을 내고 “MBC는 무한도전이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정치적구호를 뒷배경 화면으로 내 보냄으로써 오락프로를 정치화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명은 이어 “이 프로 담당자인 김태호PD는 주말황금시간대에 온가족이 시청하는 가족오락프로그램 연출자로서 국민에게 끼칠 영향력을 고려, 신중하고 객관성있게 발언하고 공정하게 프로를 제작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방송화면에 노조의 정치성 구호와 현수막을 번번이 노출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에도 무한도전프로는 출연자가 “광우병송아지”라는 자막이 달린 인형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까불면 더세계.. 진압의 법칙”등의 자막을 방송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방송해 누리꾼들로부터 찬반논란을 빚어왔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성 PPL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 간접광고는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구호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함으로써 과연 심의를 할 것인지 심의하게되면 그결과는 어떻게 될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정치적인 구호(원내)가 배경으로 등장한 KBS 무한도전 프로그램.

政府지원 解法제시는 포퓰리즘적 정치구호 PPL 노출도 논란 불러

고객 등록금에 놀라워하는 인터뷰 등은 모두가 감성적인 접근이어서 일반화하거나,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또한 내년부터 7조원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가운데 30%인 2조1천억원이 부실채권화해, 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는 정부정책에 먼저 찬물을 끼얹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까지 주었다. 이 프로가 물론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정부지원은 당연히 늘어나야겠지만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고졸이후 바로 취업하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 하는 것이고, 정부지원 없이도 자기 책임하에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

자녀가 없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왜 대학생에게만 지원해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고

10면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국내 전립선암 환자 수는 99년 1,437명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3,487명으로 6년새 2.4배로 급증했으며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질환 가운데 증가율로 1위, 다발 빈도수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전립선암이 남성암발병률 1위인데 한국인의 전립선암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판단되고 있다.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77%에 지나지 않는다. 배뇨장애, 사정통,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후 진단되는 전이성

전립선암은 5년 생존 확률이 30~40%여서 암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0세 이상 모든 남성은 매년 비뇨기과를 찾아 혈액검사 등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형제에게 전립선암이 있을 경우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의 3배 수

준이라고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다. 여러 회우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립선 무료검진에 적극 참여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전립선암의 조기발견과 기타 전립선 질환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란다. [4]

〈이보길 편집위원 기〉

나날이 새로워지는 부부금슬 “지금도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5>

회우초대석

李蕙馥

인터뷰 글·사진 / 호천웅(본보 편집)

목동 자택에서 만난 여든 일곱의 이해복 회장은 건강했고 평안한 모습이었다.

이회장이 주방에서 손수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집안 분위기를 둘러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전설의 사회부장, 명성을 떨친 종군기자의 노후는 의외로 조용하고 조촐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검소하고 소탈한 이회장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화려한 경력의 이 회장 좀 되면 보다 넓은 아파트에 보다 고급스런 가구들로 장식되었으리라고 생각했던 속물근성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흔한 대로 건강부터 여쭙봤다.

“건강해요.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돼요. 그러나 나이가 있으니깐 조심하고 살아요. 나이 들면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계단을 다닐 때 특히 조심합니다. 몸을 낡은 기계로 생각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용해서 조심스럽게 사모님께서는요? 라고 말문을 돌렸다.

“교회에 갔어요. 권사로 영락교회를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 권사로 봉직하면서 거의 매일 교회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집안일은 내가 주로 맡아서 하지요.”

다시 둘러보니 깨끗하고 말끔하고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이 새삼스레 돋보였다.

“저 집안 일 아주 잘합니다. 청소는 물론이구요. 밥하는 선수가 됐구요. 설거지도 하구요. 그런데 세탁은 못해요. 뭐 좀 복잡하고 그래서요.” 그러면서 씩 웃으려다 마는 이회장의 모습이 천진스러워 보였다.

인터뷰 중간에 교회에 갔던 사모님께서 귀가했다. 나이보다 젊고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사모님 방봉세(80)여사와는 서울신문에서 사회부장으로 일할 때인 1955년 사회면 편집담당이었던 김대우씨의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바로 사모님 자랑으로 이어졌다. 7살 아래인 사모님 방봉세 여사는 친정이 신의주였다. 여고생이었던 방여사는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1월의 신의주 학생반공의거에 참가했다가 처형을 피해 단신 월남했다. 서울에서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미국선교사와 선교 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결혼 당시 방여사는 덕성고녀의 교사였다. 이 회장은 자신은 술 마시고 늦게 귀가 한 일이 비밀비재했지만 사모님이 자녀교육을 잘 해서 3남매가 모두 잘 자라 성공해서 자랑스럽고 6명의 손자 손녀도 귀하고 예쁘게 성장해서 흐뭇하다고 말했다.

큰 아들은 소아과의사로, 차남과 막내 사위는 변호사로 성공했으며 모두 2명씩의 자녀를 두어서 이회장의 손녀와 손자는 모두 6명이다. 벽에는 단란한 가족사진과 한글로 쓴 가훈이 걸려 있었다.

가훈의 내용은 -믿음의 아버지-사랑의 어머니-소망의 자녀들이었다.

미션 스쿨 출신인 사모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가훈을 되새겨 봤다. 믿음의 아버지와 사랑의 어머니는 이 공간에 있으나 소망의 자녀들은 모

두 소망을 이루고 독립해서 다른 공간에서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가꾸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이회장의 중요 일과 중 하나가 영어 공부다. 매주 월, 수, 금 밤 8시 10분부터 10분 동안 필리핀 여선생님으로부터 국제 전화로 영어회화와 작문을 배우는데 시간이 갈수록 재미가 더하다며 환한 표정으로 기뻐했다.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준도 꽤 높아졌고 현재 교재 84단계를 공부하는 중이다. 아들이 등록하고 교재도 계속 복사해주어서 편하게 공부한다고 한다. 영어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언론계에서 함께 일한 분들 만나는 모임이 있고 보성전문학교 때 친구들과도 매달 정해놓고 만나 대화도 나누며 소주도 몇 잔씩은 나눈다고 한다.

이 회장은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이다. 고향집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뛰어나서 여름에는 소나무그룹이 아름다웠고 겨울에는 설경이 부소산 같았다.

장조카가 이민가면서 처분하지 않고 놔뒀으면 지금 좀 고향집에서 지낼 텐데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양평보통학교 시절 왕복 20리를 걸어서 통학한 덕에 약했던 몸이 건강해졌고 지금도 걷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한다.

서울로 유학해서 중앙고보와 보성전문학교를 다녔는데 일제 말기에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산동성에서 훈련받았다.

남만주 태평천(太平川)역에 주둔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벌판에 참호에 폭탄을 지고 들어가서 소련군 탱크가 진주하면 함께 폭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다행히 소련군 탱크와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괴로움에서 잠시도 벗어 날 수가 없었다.

1945년 8월9일 일제의 국동군이 소련군에 항복하면서 포로 신세가 됐다.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수용소에서 탈출했고 3·8선을 넘어 서울로 돌아왔다.

1945년 10월의 일이었다.

상과(商科) 출신의 청년 이해복은 아버지 친구가 상무로 있던 저축은행에 취직하려 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1946년 5월 서울 길거리 전봇대에서 창간 민주일보가 기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읽고 지원해 합격한다.

신문기자를 하겠다고 하자 한학자이며 신설동에서 한약방을 경영하시던 아버님께서 첫째, 돈에 집착하지 말라. 둘째,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 셋째, 사실을 사실대로 써라. 는 3가지 약속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허락하셨다. 이때의 약속이 기자 이해복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리고 건국과 한국전쟁, 5·16을 넘나드는 격동기의 현장에 부딪치고 역사를 기록하며 기자로서의 삶을 불태우게 된다.

자유신문 기자 시절 남로당의 위조지



청소는 물론 밥도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한다는 이해복 회우가 자택에서

“치매 예방에 도움”... 국제 46년 記者출발, 6·25 종군...

페 사건의 27차례 공판을 계속 취재했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며 1950년 5월 20일 경향신문으로 옮긴 다음 달 한국전쟁이 터지고 종군기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전쟁이 터지던 날 이해복 기자는 전선 취재 지시를 받는다. 평상복 차림으로 군용차가 아닌 회사 지프를 타고 사진기자와 함께 동두천으로 향했다.

당시 북한군의 기습남침 상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은 물론이고 군 출입 기자들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 데다가 정부나 군이 정직하지 못한 탓이기도 했다.

전선으로 가는 동안 포성이 들려오는 데도 국도 옆에서는 모내기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한가로웠다. 동두천 전선부대에 도착했을 때 지휘관이 기자에게 보여준 것은 초전에 사로잡은 인민군 병사 몇 명과 노획한 무기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리고 전선에 이상은 없다는 설명이 고작이었다.

이회장이 서울로 돌아와 쓴 첫 종군 보도는 '전선에 이상 없다. 국군 용전분투 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고 이 기사는 사진과 함께 1면 톱을 차지했다.

서울 신문의 한규호 특파원이 임진강에서 발신한 내용도 '임진강에서 총반격,

완전격퇴 시간문제.'라는 제목이었다.

27일 현재 군 보도과에서 밝힌 종합전과도 '해주시내로 국군이 돌입했다.' '의 정부를 재탈환 했다.'는 엉터리 내용이었고 그대로 각 신문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 혼란상태였다. 군의 이런 대응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26일 국방부에서 종군기자단이 결성됐지만 28일 서울이 공산군 수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부분의 종군 기자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국군과 함께 남하하지 못하고 흩어졌으며 한규호 기자는 남북 뿔뿔이 났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 회장은 기자임을 숨기고 고향인 양평으로 피신했다.

고향에 숨어 있다가 인민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아버님의 도움을 받은 분의 아들이 인민위원장이었고 그가 처벌을 요구하는 조사관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진술해 주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9·28수복 후 이 회장은 경향신문에 복귀해서 역사적인 평양 탈환 작전에 종군한다.

10월1일 3·8선을 돌파한 국군은 북진을 계속해서 19일 평양을 탈환한다.

대동강에서 본사 이해복 특파원 19일 발로 된 경향신문 10월 20일자 1면 톱기사는 "평양시 완전 탈환" "각 부대는 속속 입성" "세계 전사상 경이적 작전" 등

이 너무 행복해요”

주일보, 자유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기자
국전쟁 참전기자(경향신문, 서울신문)
S 해설위원장, 언론중재위원장,
한언론인회 회장

(위원 · 수필가)



에서 부인과 포즈를 취했다.

전화통해 영어공부에 매달려 신문 · 방송 고루 거친 산 歷史

의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이 회장은 평양 탈환 1보가 실린 신문을 지프에 가득 싣고 다니며 이북 동포들에게 돌렸으며 동관을 가지고 가서 평양 현지에서 혼자 호위를 내보기도 했다.

역사적인 순간, 이 회장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황홀한 시간들이었다.

1951년 휴전 회담 취재 중 중앙고보 선배이며 스승인 김동석씨를 8년만에 관문점에서 만났다. 월북한 김동석씨는 북한 측 통역이었는데 이 회장을 만나자 큰 소리로 욕을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태도가 부드럽게 달라지면서 유진오 교수와 이인수 씨등의 안부를 묻던 기억이 생생하다.

얘기는 나누었지만 손도 잡아보지 못했던 해후가 지금까지도 안타깝다.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검열에서 통과되지 않아 신문에 실리지도 못했다.

종군 취재 중 잊지 못할 일 가운데 하나가 휴전 협정 체결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경향신문에서 서울신문으로 옮긴지 3일 되었을 때인데 취재는 했지만 관문점에서 서울로 귀환하는 버스를 놓쳤다.

당황스런 순간 마침 출발하려던 전 소속 사인 경향신문 지프를 보고 태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다급했다. 우선 기사 송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무조건 경향신문 지프의 꿈무늬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에 매달렸다.

일산까지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려 갔다. 숨이 차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들기도 했다.

일산에서 미군 해병대가 검문을 해서 차가 멈췄으나 검문이 끝나자 지프는 이회장을 그냥 무시하고 내달려 버리는 것이었다. 일산에서 급히 신문사와 어렵게 연락이 났고 제시간에 보도할 수 있었다. 목숨을 건 송고 작전이었다.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도 경험했다. 자유당 정권시절의 얘기다. 동해안 지역에 3m가 훨씬 넘는 많은 눈이 쌓였다. 당시 송요찬 3군단장이 지프를 보내며 현장 취재를 요청해서 설화(雪禍)현장으로 달려갔다.

눈이 쌓여 먹을 것을 못 찾는 토끼. 산양. 노루 등이 눈 속에서 설설 기어 나오는 장면들을 목격하며 막사가 눈사태로 휩쓸려 가버린 5사단 본부를 취재했다.

당시 5사단장이 박정희 장군이었고 육군 본부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당시의 설화가 불가항력이었다고 보도한 서울신문 덕에 박정희 장군이 면책된 것도 기억에 남는 취재 중의 하나였다.

그 후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켰다. 서울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이 회장은 육군 사관학교(교장 강영훈)생도의 혁명저지데모 관련기사로 문제가 돼 2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 회장은 그때를 회고하며

신문부가 기사에 문제를 삼았으나 자신을 봐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술회했다. 이 회장은 동아일보로 옮겨 동경지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KBS에서 해설위원장, 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수행했으며 1980년 정년퇴직했다.

KBS에서 지낸 “13년”이 한 직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기록이다. 그 후 언론중재위원장과 대한 언론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지금도 대한 언론인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때 남북돼 순직한 서울신문 종군기자 한규호씨의 이름이 한국기자로서는 유일하게 파주에 있는 한국전순직종군기자추념비에는 올라 있지만 후사도 없는 그를 생각하면 더 쓸쓸 해진다고 그의 사진이라도 서재필 박사 등과 같이 프레스 센터에서 볼수 있게 됐으면 하는 희망이 간절했다. 인터뷰를 끝내면서 사모님께 남편 이해복에 대해 물었다.

“베를린을 좋아하고 경제에 관심이 덜해 젊어서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베를린 덕에 좋은 친구들이 많고 노후에 잘 지내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 친구들이 쳐들어 올 때가 힘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이들과 같이 보내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케이크 사다놓고 기다리는 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쳐서 잠이 들었구요. 한시가 넘어서야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④



金泰運 회우

Wine의 세계 (上)

와인은 술의 메이저(Major)다. 전 세계 어디든 와인이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단연 으뜸이고 성지(聖地)다. 마시는 양도 세계1위, 만드는 양도 세계1위니 그 옆에 나설 자가 없다. 통계에 따르면 생산량은 전세계의 21%, 소비량은 전세계 15%다. 다음은 이탈리아로 20~15%, 그 뒤를 스페인과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는 그 무렵 막걸리와 탁주를 마시며 청포도의 낭만을 읊고 있었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뚝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1905~1944 · 육사)

세계에는 포도의 품종(品種)이 약 1만종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포도주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약 400종에 이른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포도는 따서 먹는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유럽은 다르다. “포도는 와인을 만드는데 쓰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시인 이육사(李陸史)도 자기그 향의 청포도를 손님과 더불어 따먹을 생각을 했다. 한-칠레 FTA가 타결되고 난 후, 그 심심하고 당분맞고 알맹이 큰 포도가 들어와 미식가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

그 맛 좋은 포도주도 싸게 들어와 한국의 포도주 값을 평정시켰고, 포도주값의 거품을 싹쓸이 거두어 버리지 않았는가.

한국, 일본 등지에서는 95% 이상이 생식(生食)용으로 포도를 생각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80% 이상이 포

도는 와인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도는 그 해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1년에 단 한번, 그 계절에만만 들어지는 것이다. 그해 그계절에 수확한 포도, 이른바 “빈티지”다. 포도주병 라벨에 연도, 이를테면 2002, 1999 같은 것이 “빈티지”인데 이것은 단지 그해에 수확한 포도라는 뜻일 뿐이다.

날씨와 일조량이 변화무쌍한 유럽쪽에서는 어느해 포도가 가장 좋았다는 평점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품질로 돌아가 그 “빈티지”에 따라 가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오래된 포도주는 좋은 것”의 오류다. 위스키의 주령을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지 4~5년 된 것이면 빨리 먹어 치우는데 좋다.

포도주를 집주석에 오랫동안 보관, 그 상태가 안좋아 변질되면 지체없이 버려야 한다. 와인은 병에 넣은 후에도 숙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변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와인의 마개를 따고 그 자리의 연장자인 호스트에게 와인을 약간 부어주는 것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질여부를 가려달라는 뜻이다. 그리고 병을 오픈한뒤 코르크마개를 내 놓는 것도 코르크가 너무 젖어 변질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해 달라는 뜻이다. 병마개에 묻어있는 와인 자국의 냄새를 음미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병마개가 물결물결 젖어있다면 그 안에 있는 와인은 심중팔구 변질된 것이 뻔하다. 다른 술과 달리 와인은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후 병에 담은 뒤에도 숙성이 계속되는 생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와인은 병에 옮겨 담은 후에도 그 맛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빈티지”는 제조연도도 아니고 오크통에서 병으로 옮긴 연도도 아니다. 그해에 생산된 포도를 말한다. 오래된 와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변질부터 반드시 살펴야 한다. [W]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올 때는 미웠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12시가 넘어 친구와 친구의 술집 여자까지 집으로 데려 왔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 친구를 내 쫓았지요.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이 회장은 후배기자들에게 6·25남침을 분명히 하지 않는 보도를 접할 때는 답답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사실보도

라고 해도 너무 정치적인 여·야 대립을 많이 보도하는 것은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편향 보도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이 현명해서 현혹되지 않고 바로 알게 되지만 교육은 제 길을 찾아야 하고 특히 역사 교육이 바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

歷史의 물길에 띄운 大韓言論人會

광화문 광장 문화탐방 안팎

대한언론인회 2009년 하반기 역사문화탐방이 지난 9월 25일 새로 조성된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광화문 역사 바로 알기와 광화문광장의 조성 의미를 테마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金官泰(77·박물관 '도슨트') 회우의 해박한 해설이 역사문화탐방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행사가 끝난 뒤 KT빌딩 지하 '오션 패밀리 씨푸드 뷔페'에서 '회원단합대회'를 열고 친목을 다졌다.

수난의 光化門

오후 4시가 지나자 회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여유 있게 광장을 돌고 있는 선배들도 눈에 띈다. 집결 장소인 교보빌딩 앞 화단 턱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건강을 묻고 안부를 전하는 회우들의 모습이 정겹다. 이날 역사문화탐방에는 李蕙馥 상임고문, 趙昌化 회장을 비롯한 文明浩, 申東澈, 李炯均, 洪元基 부회장, 홍일점 申東植 회우 등 80명이 참여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통로 지하에 조성된 '해치마당'에서 金官泰 회우가 들려주는 광화문역사이야기를 들었다. 광화문은 역사의 물줄기가 가파른 구비를 돌 때마다 술한 수난과 우여곡절을 반복하여 그 자체가 역사다. 김 회우는 사건발생 연도까지 뚜렷이 기억하며 광화문의 설립 배경과 수난사를 흥미 있게 풀어냈고, 회우들은 수험생들처럼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김 회우는 한국일보 출신으로 서울신문 사업국장을 역임한 뒤 여러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박물관 도슨트'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해치마당 벽면에는 광장 조성 중에 발굴된 '육조거리'의 토층 원형을 전시해놓아 눈길을 끈다. 해치 상징물, 아리수 샘터 등이 설치되었고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에도 해치를 표현해 놓은 입체적 공간이다. 수유실, 파우더룸 등 편의시설이 있어 광장의 '지하 쉼터' 구실을 톡톡히 한다. '해치'는 서울의 상징물로 불을 막아준다는 전설의 동물. 해치마당을 나와 광화문광장을 둘러보았다.

광화문광장 상징물

'육조(六曹)거리'로 불렸던 광화문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역사와 정치의 심장부다. 1년 3개월에 걸친 조성공사를 끝낸 뒤 지난 8월1일 새롭게 탄생,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상징성과 역사성 부각에 주안점을 뒀다.

광장의 대표적 상징물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다. 충무공 동상 주변을 둘러싼 '12·23 분수'는 12척의 배로 23전 23승을 이끌어낸 전승기록을 뜻한다. 밤이면 바닥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통해 형형색색의 분수 모양을 연출, 충무공의 海戰을 이미지

이규섭

-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화 했다는 것. 지난 여름 이곳은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변했다.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리더십센터 제장명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치른 해전은 총 43회로 38번은 승리했으나 5번은 전과나 피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니 분수 이름도 고증을 다시 거쳐야 할 판이다.

한글날(10월 9일)에 선보일 세종대왕 동상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미리 공개된 세종대왕의 모습은 왼손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쳐든 채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는 좌상(坐像)이다. 동상 앞쪽에는 해시계와 측우기, 혼천의(渾天儀)가 설치되고, 뒤쪽에는 집현전 학사도 등을 浮彫 형식으로 조각한 열주(列柱, 줄 기둥) 6개가 만들어져 그의 업적을 기린다. 기단 하단부와 연결되는 광화문광장 지하에 전시공간인 '세종이야기' 기념관이 들어선다.

광화문광장 볼거리

지상광장 양쪽으로는 수심 2cm의 '역사물길'이 흐른다. 동쪽 역사물길 바닥 둘레에는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한 칸씩, 617칸에 주요 역사가 새겨져 있다. 역사물길의 시작은 '1392년(태조 1년) 태조 즉위 조선건국'이다. 연이어 '1426년(세종 8년) 공노비에게 100일간 출산휴가 제공',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발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8년 숭례문 화재'와 같은 식으로 기록해 놓은 역사 연표다. 서쪽에도 역사물길이 있지만 아직은 빈칸이다. 우리가 남긴 역사의 발자취를 후세가 기록하도록 남겨둔 것. 이 물길은 이순신 동상 분수 수조와 만나 세종로 사거리에 설치된 물길을 따라 청계천으로 합류한다.

시민들의 사진촬영 명소로 인기를 끄는 '플라워 카펫'은 길이 162m, 폭 17.5m에 생화 22만4537송이를 심어 놓



회원단합대회에서의 건배.



광화문 광장 플라워 카펫에서 기념촬영.

평소에 흘러 듣던 過去史 재조명에 감탄 80여 회우 건강-화합다짐 잊지못할 축배

은 꽃 웅단이다. 조선의 한양 천도일부터 광화문광장 개장일까지 날수를 뜻한 다지만 지나치게 인공적이다. 전통 단청 문양을 응용해 디자인했다는 꽃밭에 자연미가 없어 그 빛이 바랜다. 광화문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살려 전통정원 양식을 살린 소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여름철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엔 은행잎이 노랗게 물 드는 여백의 공간이 되었을 터. 꽃 관리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니 광장의 역사적 상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플라워 카펫 끝 북쪽, 광화문 복원공사 현장의 대형 가림막이 눈길을 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화백의 작품 '광화문에 뜬 달'이다. 나무합판 2616개를 붙여 만든 가림막 그림은 해머소리 나는 삭막한 공사현장에 돋보이는 명화다.

'무늬만 광장' 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장 첫날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국가 상징 가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샹젤리제 거리 양쪽에는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 등 가로수가 줄지어 있고, 연말연시엔 오색 트리가 장식되지만, 광화문광장에는 그들이 적은 햇볕 가림막을 설치하여

삭막하기 짝이 없다.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려면 보완이 필요하고, 광장이 정치세력의 시위 장소로 변질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을 두고 '무늬만 광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광장은 닫힌 광장"이라며 광화문광장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창의력도 시대 정신도 빈약한 구시대적 조경공간으로 차라리 폐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우익 인사 조갑제(조갑제 닷컴)대표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좁은 공간에서 분수를 구경하고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다? 생각 없이 서성이는 것 말고는 몰려다니면서 할 일이 없다"며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 이승만, 박정희 동상이나 6·25 참전 전사 소년병 2400여 명의 추모비를 세워 역사성이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평선 회우는 "광화문광장이 삭막하고 상징성이 떨어지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광장과 도로 사이의 안전 턱(15cm)이 낮아 사고 위험도 우려된다. 분수에서 뛰어 노는 어린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우의 - 화합의 밤



김관태회우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회우들.



교보문고 앞 집결지에 모여 정담을 나누는 회우들.



건배사를 하는 이해복 상임고문.



인사말하는 조창화 회장.

니다. 실제로 개장 다음날 운전 부주의로 옆 차량과 부딪힌 택시가 광장 20m 안까지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면으로 차량이 질주하여 아찔하고 소음도 심하다. 세종로의 16개 차로가 10개 차로로 축소되면서 교통 체증이 빚어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뒤풀이 화기애애

KT빌딩 지하 '오션 패밀리 씨푸드 뷔페'에서 이어진 '회원단합대회'에는 참가자 외에도 뒤늦게 참석한 회우들로 성황을 이뤘다. 대형 룸에는 '09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및 회원단합대회' 현수막이 걸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吳健煥 상임이사가 "술과 안주는 무한 리필"이라며 단합대회 시작을 알렸다.

趙昌化 회장은 "요즘 신종 플루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선배들을 비롯한 회우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말을 했다.

"지난 6월 상반기에는 1박2일로 강원도에서 세미나와 함께 안보탐방을 했고, 하반기는 늦은 시간 도심에서 열린 역

사문화탐방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李蕙馥 상임고문은 건배제의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준 趙昌化 회장 등 임원진에게 감사 드리고, 우리 모두 건강한 가운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 바란다"고 말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생맥주로 건배를 한 뒤 소주잔을 권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회우중 확인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계성일 공대식 김건이 김귀재 김명구 김의수 김영범 김영호 김정일 김해도 김호기 나용경 문명호 박실 박영길 박영식 박재권 박진서 백일진 성낙오 송두빈 송효빈 신동식 신동철 심재복 안종우 안평선 안현태 오건환 오전식 유성렬 윤병찬 윤익환 이규섭 이배국 이병천 이보길 이종운 이형균 이해복 임응식 임선웅 전용호 조창화 지연흥 천상기 최무룡 최상목 최희조 한강수 한기호 한영섭 한영탁 홍성혁 홍원기 황대연 황봉구 <이상 57명> [출처]

광화문-朱雀大路의 역사

광화문은 서울의 심장이자 조선의 육조거리다. 광화문은 한국 근현대사는 물론이고 조선조의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과정에서 소실 재건 축소 등의 파란곡절을 겪었다. 지난 8월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하는 창조적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수난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1392년 7월 17일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를 한 뒤 1394년 10월 28일, 고려의 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고, 이듬해 (태조 4년) 9월 29일 주산인 북한산과 안산인 관악산을 축으로 법궁(法宮)인 경복궁을 창건했다. 경복궁 앞 주작(朱雀, 이십 팔 수 가운데 남쪽을 지키는 일곱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大路 왼쪽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기로소(耆老所,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를, 오른쪽에는 예조 중추부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를 둔 육조거리를 만들어 권부의 중심지로 삼았다.

광화문이란 명칭은 1395년(태조 4년) 정도전(鄭道傳)에 의해 '사정문(四正門)'으로 불렸으나 1425년(세종 7년) 집현전에서 '왕의 큰 덕이 나라를 비춘다'는 의미로 광화문(光化門)이라고 바꾸었다. 일제는 1912년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태평통 도로를 신설했으며 1914년부터 육조거리는 '광화문통 거리'로 불리게 되었다.

술한 수난을 겪은 광화문은 그 자체가 역사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함께 잿더미가 된 뒤 270여 년 동안 방치됐다가 1864년(고종 1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한일병합 후 1927년 조선총독부는 광화문을 해체하여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쪽으로 옮겼다. 광화문이 있던 자리는 조선총독부 광장으로 변했고 조선의 관청은 모두 철거되는 수모를 당했다.

한국전쟁 때 불탔다가 1968년에 다시 복원된 광화문은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기형적인 건물일 뿐 아니라 원래 자리에서 동쪽으로 10m, 북쪽으로 14m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광화문을 본래 위치에 본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은 2006년 12월에야 겨우 시작됐다. 광화문은 1929년에 작성된 실측설계도면과 사진기록 등 고증을 거쳐 높이 7m의 석축과 13m의 목조 누각으로 복원돼 2010년 10월에 모습을 드러낸다.

일제는 1925년 북악산 중턱 13만평에 일본 종교의 중심인 조선신궁을 건립하기도 했다. 주산인 북한산과 안산인 관악산의 중심 축을 조선총독부와 조선 신궁을 향하도록 바꾸고, 광화문을 헐어낸 후 육조거리를 식민통치를 위한 서양식 건물로 지었고, 1918년 광화문 네거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광

金官泰

·분회 회우
·박물관 '도슨트'



화문선 전차가 달리게 되었다.

1921년 1월 6일 조선총독부는 3·1운동으로 격앙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의 발행을 허가했으나 독립을 향한 민족의 열망은 막지 못했다. 1926년 4월 26일 순종황제가 창덕궁에서 승하함으로써 518년의 조선왕조

는 막을 내리고 법궁인 경복궁의 권위는 찾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행사장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언론계의 대 논객 소오 설의식(小悟 薛義植, 1901~1954)선생은 1926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에 '헐려 짓는 광화문'을 게재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팔도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精粹)를 뽑아 지은 광화문아! 돌덩이 한 개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광화문아! 청태(靑苔) 끼인 돌 틈에 이 흔적이 남아있고 풍우 맞은 기둥에 그 자취가 어렸다. 하면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네 생명이 있으며,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고 통탄하면서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떠한지 지내려'고 피를 토하는 만 백성의 슬픔을 토로하였다.

심지어 일본인 마저 우리 민족의 자존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민족박물관을 세운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91)는 1922년 9월호 '개조(改造)지'에 '사라지려 하는 한 조선 건축을 위해서'라는 글을 실어 식민정치의 비 문화정책을 비난, 여론을 환기시켰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났다. 이듬해 일제의 잔재인 경성부를 서울시로 바꾸고, 동(洞) 이름도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광화문의 문루는 완전히 소실되고 석재로 된 홍예문만 남게 됐다.

1960년 4·19로 광화문은 시민혁명의 무대가 되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냈다. 1966~1967년 세종로 지하도, 광화문 지하보도 개통으로 지하공간 문화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

이 무렵 광화문 네거리에 이순신 장군의 청동 동상이 등장했다. 1995년에는 지하철 5호선 개통과 함께 광화문 지하철역이 들어섰고, 2002년 월드컵 경기 때는 광화문거리가 붉은 함성으로 출렁거렸다.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에서 4m 아래 육조거리가 하천의 영향을 받은 자연 퇴적층과 이를 보강한 흙 다짐으로 쌓았음을 확인하여 조선토목기술의 우수성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선 600년 동안 광화문은 무려 8m나 되는 흙먼지가 쌓인 토층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출처]

꼭 기억해 두기로 한날. 2009년 9월 8일 화요일. 한토막의 남기고 싶은 얘기이다. 나보다 선배를 생각해준 후배의 우정이다. 『마음이 씨가 된다.』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었지만 음식점(나지집)에서 만난 조선일보 어느 후배의 아름다운 마음가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이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인심이 독해졌다고들 한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말들이 주류를 이루기도 한다. 정말 답답하고 삶의 피곤을 가지게도 한다. 흔히들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가 어려운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아닌적이 있었는가.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준말이다.”

위기관 말의 뜻이 「위대한 기회」란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날 음식점에서 만난 후배는 얼 굴은 기억속에 살아 있지만 근무하는

어느 후배의 고마움, 아름다움

부서와 이름이 떠 오르지 않았다. 약속한 점심 식사도 아니었다. 우리 일행 (라영만 전제작국장 대우와 조용승 한국논단 편집위원, 김효성 전 코리아나호텔 감사와 필자)은 광화문 근처 나지집을 갔다. 음식점 홀 한 옆에 후배 일행 3명(여직원 2명 포함)이 식사중이었다. 우리 일행이 식사를 마칠쯤에 음식점 직원이 『저쪽 손님이 계산하셨습니다.』라고 전해준다.

『아니,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요.』라고 인사말을 건넨곤 일어섰다. 후배 일행은 일어서서 『안



김종현

· 본회 회우
· 전 킴에디터닷컴 대표

녕히 가십시오.』하면서 우리가 문밖으로 나갈 때 뒤따라 나왔다. 우리는 『식사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끝났는데...』하고 의아해 하다가 『아! 선배들이 식사 마치고 일어서야 후배가 일어서는 것이 예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일행이 식사 마칠때를 기다렸다는걸 알았다. 우리 식사값을 내준 것만

도 아름다운 감동인데 우리가 일어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일어나는 그 후배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다. 이날 조선일보 후배가 던져준 「기쁨」이다. 거리에서 옛 선배

를 만나도 슬쩍슬쩍 결눈질하며 못 본 척 하기 일쑤인데 말이다.

조선일보 후배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선배에의 사랑을 맛보면서 활활 타오르는 선후배간의 애정을 담은 불꽃을 가슴속에 꺼 안은것 같다.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 안할수 없다. 역시 조선일보 후배들은 글쓰기 좋아하고, 사람 사귀기 좋아하고, 선배를 추억해주는 열정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실함」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 후배의 이름을 꼭 찾아 기억속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아 여가저기 알아보기도 했다.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글에서 주인공 이름을 명시치 않지만 그의 성실한 고마움은 나의 영원한 추억첩에 담겼다. 그는 편집국 모부서의 데스크급 중견 기자다. 생각보다 「실천」의 귀중함도 다시 깨달았다. [4]

隨想 살며 생각하며

여행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 알고 하나마나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 번 털어놓고 싶다. 여행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고 즐기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여행 특히 그룹투어를 하다보면 일행 중 한 두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잡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해서 우리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이 더러 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일상사가 되어서 이런 일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옆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쇼핑센터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사면 줄줄이 따라 쇼핑을 하거나 싸쉴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할 정도로 몰려서 걷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스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은 남을 배려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양해를 얻거나 가볍게 사과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한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거나 가로질러 지나갈 때는 반드시 양해를 얻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이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갈 때 자신은 당연히 사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한국인들이 그냥 지나치면 교양이 없거나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 전체를 깎아내리게 된다.

외국인들은 웃기만 스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딪치고도 사과 없이 지나치므로 자연히 그들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게 된다.

남을 배려해야 여행도 즐겁다

이런 결과는 요즘 서울의 거리에서 장기 체류한 듯한 외국인들이 우리와 스치거나 부딪치거나 가로질러 지나칠 때 한국 사람처럼 아무런 사과도 않고 태연히 지나가는 것을 보면 입증되다. 단체 여행을 할 때면 으레 겪게 되는 불유쾌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건환

· 본회 상임이사
· 전 KBS 파리 총국장

련이고 심하면 전체 여행 스케줄을 사실상 망치게 하는 일도 있다.

오래 전 언론재단 후원으로 편집기자들이 10여일 동안 동남아 여행길에 오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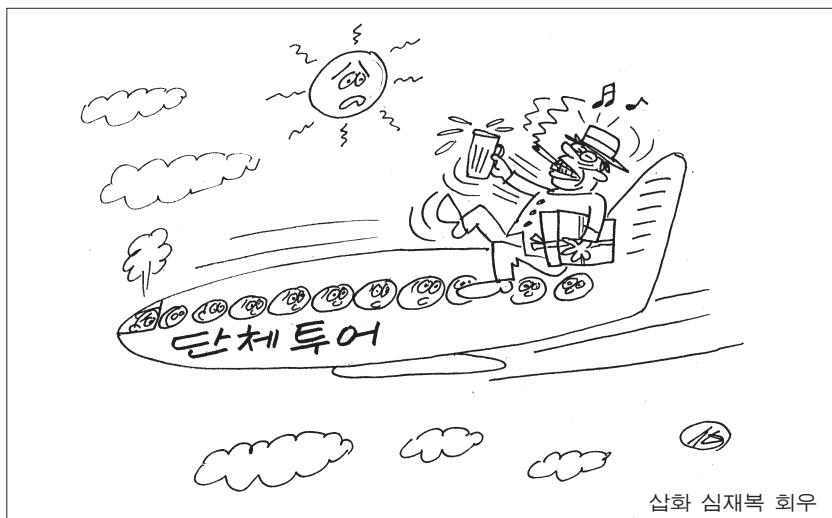
여기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 버스 출발 10분 정도 지나서야 허리춤을 추기며 차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며칠

다른 사람이 산 물건 값을 꼬치꼬치 캐묻고는 버스 출발 직전에 뛰어 내려가서 그 물건을 모두 사가지고 엄청난 보따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시간을 허비했는데, 기막힌 것은 다른 사람이 산 값보다 깎으려고 시간을 더욱 뺏고 태연하게 싸게 샀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무신경으로 일행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경우, 10여명의 기자가 20여일 동안 합동 취재를 다닌 적이 있었다.

일행 중 담배를 무신경하게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 호텔 복도나 공항 로비 등 카펫 위에서나 식탁에서나 대포집 드럼통 위에 떨어놓듯 재를 떨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몇 번 조심하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충고를 하면 잠시 조심하는 듯 하다가도 금방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 친구는 담배를 입에 물면 아무에게나 성냥 있느냐고 묻고 불을 얻어 담뱃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내게 “선배, 성냥 좀 있어요?”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없다고 하면서 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불을 챙기지 않느냐고 핀잔도 주었지만 나중에 아침마다 호텔 방의 성냥을 모조리 거둬 이 친구에게 주고 주머니마다 성냥이 있으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빌려달라고 귀찮게 굴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스운 것은 여전히 담뱃불을 달라고 해서 당신 주머니마다 성냥을 넣어주었는데 다 어디에 버렸느냐고 하면 “아차, 그렇지”하면서 담뱃불을 붙이는 것이었다.

결국 취재여행 내내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데 실패했다. 여행, 일상을 떠나 느긋하게 호기심을 채우고 색다른 문화에 젖어보려면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으뜸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일 것이다. [4]



삽화 심재복 회우

이런 일 때문에 즐거워야 할 여행이 불유쾌하게 되고 피곤해지는 일이 비일비재다.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던 시절 빡빡한 일정 때문에 아침 출발 시간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막상 버스가 출발하려면 한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꾸물거리거나 뒤늦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막상 늘 늦는 사람은 언제나 같은 사람이어서 나중에 일행으로 부터 핀잔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게 마

을 이 사람 때문에 속을 끓이던 안내자가 아침이면 이 사람 방 앞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확인하고 남보다 10여분 먼저 버스에 태웠다. 문제는 그 후 안내자가 다른데 신경 쓰는 동안 당사자는 살그머니 빠져나가 화장실에 앉아 있어서 결국은 출발이 늦어지고는 해서 모두 손을 든 일이 있었다.

더욱 황당한 사람은 쇼핑을 하고 나서 버스에 탄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越南파병” 듣자 웨스트 포인트→뉴욕 택시 질주

吳田植회우(75)는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대학과정을 세 군데나 거쳤다. 육군사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찰전문대학(경찰대학 전신)을 다녔다. 육사는 13기로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몸이 좋지 않아 자퇴했다. 기자생활은 서울신문에서 시작해서 대한일보, 민족일보, 중앙일보를 거쳐 경향신문 정치부장과 부국장을 역임했다.

그가 1960년대와 70년대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집권층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한국 현대사를 권부 가까이에서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吳 회우가 그렇게 된 데에는 세 군데 대학과정, 특히 육사와 경찰학교를 다녀 군과 경찰 인맥이 남다른 이력을 갖게 한 배경이란 사실도 그렇다. 그가 신문기자로서 보낸 20대 중반 이후 40대 중반에 이르는 청장년기 20여년간은 대체로 朴正熙대통령이 혁명을 해서 집권하고 서거하기까지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吳 회우는 60년대 후반 진관외동 기자촌 건립 위원장을 맡아 기자촌 탄생 주역의 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어쨌거나 5·16군사혁명 직후 민정이양에 이르는 긴박했던 상황과 경제개발과정, 3선개헌과 유신, 긴급조치, 朴대통령 서거 등 60,70년대 20년 역사의 파노라마를 지켜본 신문기자 吳田植회우는 개인적으로 지난날을 어떻게 반추하고 있을지, 무엇보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재미 있었다고 할까, 그러나 한 우물을 팔 걸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공직을 한 번도 맡지 않은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공직을 맡았다면 가정이지만 구속이 되거나 어떤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일반 대학 외에 군과 경찰이라는 특수 대학 두 곳을 다녔다는 사실 말고도 기자가 된 동기부터가 운명적이다.

“경찰대학 졸업반 때 범죄심리학을 강의했던 장병림교수의 권유로 자유당 말기 서울신문에 수습기자로 들어가 기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장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영어도 잘 하고 예쁘장 하니 경찰보다는 기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자 시험을 보았습시다. 그때 사장이 손도심씨, 사회부장은 이해복씨였어요.”

金瑯熙 회우와는 육사와 고려대, 서울신문 수습동기라면서 우연치고는 이것 역시 흔치 않은 인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의 진짜 운명은 서울신문에서 최고회의를 출입하면서 全斗煥대위(뒤에 대통령)를 만나고 나서부터였다. 생도11기인 全대위는 吳 회우의 육사 2년 선배로 재학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당시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민원비서관이었던 全대위가 차의장한테 데려가 인사를 시켰다.

“차의장이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

吳田植회우의 특종秘話



월남파병 특종때의 얘기를 털어놓는 오전식 회우.



오전식 회우의 기사를 실은 당시 서울신문지면. 월남파병 특종기사가 게재됐다가 빠졌다.

李厚洛씨에 돈 얻어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送稿 문공부장관 경질 등 심한 후폭풍에 시달려

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발 田, 심을 植 입니다고 말씀드렸더니 배를 쿵 찌르면서 ‘발에다 심어’라면서 이제부터 자네 우리 편이야.”

全斗煥중령이 1967년 무렵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으로 청와대 외곽경비책임을 맡고 있을 때 당시 청와대 출입 吳田植기자와의 에피소드 한 가지.

“全중령이 하루는 이런 부탁을 해요. 박종규경호실장에게 얘기해 朴대통령이 30경비단 시찰을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실장에게 전했더니 감히 그런 부탁을 하느냐는 듯 웃긴다는 반응을 보여요. 그러다 어느날 저녁 무렵 차실장한테서 朴대통령이 경비단에 들른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엘 갔

더니 全중령이 朴대통령한테 ‘각하, 애들이 고생을 하는데 샤워시설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샤워 시설은 朴대통령이 즉석에서 경호실장에게 지시해 얼마 안 있어 설치됐다.

1965년 5월16일 朴대통령은 세 번째 미국을 방문했다. 케네디대통령때 두 차례, 그리고 케네디대통령의 급서로 대통령을 승계한 존슨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 吳田植기자가 수행취재기자로 갔음은 물론이다. 타사에선 대부분 부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급 기자들이 朴대통령 방미 수행취재단에 포진해 있었다.

당시 서울신문을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검색해 보니 朴대통령의 한미정상회

담을 비롯한 방미 관련 기사가 5월18일부터 24일까지 매일 吳田植 특과원 이름으로 1면 톱을 장식하고 있었다.

사단은 朴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공식 일정을 끝내고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했을 때 수행기자단에서 풀 기자로 뽑혀 혼자 수행 취재하면서 일어났다. 웨스트 포인트에는 취재단 중 한 사람만 수행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 육사를 다녔던 자신이 자연스레 선발돼 가게 됐다는 것.

吳 회우는 거기서 朴대통령이 존슨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군 전투부대를 월남에 파병키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실을 캐치했다.

“웨스트 포인트에 갔을 때 朴대통령이 물어요. 기자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사를 하니까 이렇게 각하를 가까이에서 수행 취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때 비서실장이 李厚洛씨였어요. 李 실장한테서 돈을 얻어 그 길로 택시를 타고 뉴욕으로 달려가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서울 본사에 기사를 긴급 타전했지요. 특종을 했지만 그 후유증은 막심했습니다. 문공부장관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함께 갔던 선배 기자들로부터 쏘아지는 원망과 질책이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한국군 전투부대 월남 파병’ 특종기사는 5월 22일자 1판 기사에 1면 톱으로 나갔다가 정부관계 당국의 요청으로 2판부터 판갈이 됐다. 2판에는 “공동성명 내용보다 유리한 언약있었다. 기대 이상의 많은 방미 성과, 朴대통령 본사 기자와 단독회견, 美 육사 방문중”이란 제목으로 바뀌어 나갔다. 웨스트포인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근처까지 버스로 1시간 40분 소요되는 걸로 돼 있다. 그런 거리를 택시로 달려 갔으니 택시비가 어지간히 나왔을 법 하다.

1965년은 한국으로서는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중요한 시기였다. 朴대통령은 존슨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측 지지와 한·미·일관계의 정립, 그리고 월남참전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및 경제원조 확대와 한미안보동맹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가져왔다. 1965년 9월25일 육군맹호부대 1진의 파병을 시작으로 10월 9일 해병 청룡부대, 66년 9월5일 육군백마부대 파병 등 73년 철군 때까지 8년8개월 동안 연인원 31만여명이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5천66명이 전사했다. 당시 참전용사의 한달 전투수당은 미군과 같은 수준의 평균 1백달러 안팎. 병장이 50달러, 대위가 1백80달러. 63년 한국의 1인당 GNP는 연간 1백달러. 월남파병 용사들의 전투수당과 독일 파견 광원 및 간호사들의 달러 송금이 오늘날 경제부흥의 초석이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圖]

崔熙助 (편집위원·중부대초빙교수)

올해는 용장(勇壯)한 ‘대한국인’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의거 100주년 이 되는 해이다.

홍범도(洪範圖), 김좌진(金佐鎭) 장군의 청산리전투가 항일독립전쟁 최대의 승첩이라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의거는 항일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쾌거였다.

따라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성도(省都) 하얼빈은 ‘대한의병 중장’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 곳이니 우리 겨레는 그 누구도 잊지 못할 뜻 깊은 역사의 현장이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역 플랫폼에서 울려 퍼진 네 발의 총성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남아의 용장한 기개를 한껏 펼친 쾌거였다. 운명의 그해 이전부터 수백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넘나들며 일제 침략군과 격전을 벌이던 안 의사는 1909년에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민족의 원수를 몸소 처단하고자 결심했다.

안 의사는 그해 10월 21일 동지 우덕순(禹德享)·유동하(劉東夏)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 하얼빈에 도착해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께 이토가 탄 특별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와 멎었다.

이토가 열차에서 내려 마중 나온 러시아 외무대신 고고프체프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한 뒤 각국 영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권총을 뽑아들고 뛰쳐나간 안 의사는 이토에게 네 발의 총탄을 연발했다. 첫 발이 이토의 앞가슴에, 제2탄은 옆가슴에, 제3탄은 배를 관통했다. 의거가 성공하자 안 의사는 “대한독립만세!”를 세 번 외치고 태연하게 러시아 헌병에게 붙잡혔다.

하얼빈역에서 300m쯤 떨어진 만주 동청(東淸)철도국 사무실로 끌려간 안 의사는 “나는 대한의병 참모총장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적장을 총살, 응징했다”고 당당히 진술했다.

러시아군으로부터 일본영사관으로 넘겨진 안중근 의사는 그 뒤 200여 일 동안 뤼순(旅順)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이듬해 1910년 3월 26일 조국을 위해 귀중한 한 목숨을 바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溫故知新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으니 그해에 꽃다운 나이 31세였다.

하얼빈시 회원가의 일본영사관 자리는 소학교로 변했고, 하얼빈역도 현대식으로 변해 그 당시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다. 역사와 대합실은 모두 근래에 신축된 것이고, 플랫폼도 여러 차례의 공사로 옛 모습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욱 통탄스러운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올해로 100주년, 순국이 내년으로 100주년인데 아직까지 그의 무덤과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못난 후손들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선열들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 선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 싸웠건만 광복 64년이 넘도록 못난 후손들은 무엇을 했는가.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커녕 무덤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남북으로 갈라져 헛된 싸움질만 되풀이하며 통일도 못 이루고 있지 않은가.

아니, 통일은커녕 이제는 지역 간의 갈등에 더해,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 갈등, 신·구간의 세대 갈등,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등 남남갈등까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못난 나라, 역사의 뼈저린 교훈을 망각하는 영혼이 병든 국민에게 어찌 밝은 미래가 있으랴.

거듭 강조하지만 또다시 망국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역사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라의 앞날과 후세들을 위해 역사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나라를 되찾고 정부를 세운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날조는 여전한건만 우리 정부와 사회계의 대응 자세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러고도 무슨 염치로 순국선열들을 대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민족정신, 부국강병, 국리민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그저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 있는 물고기는 힘차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다. [주]

아, 조세형!... ‘匹馬單筆’의 숙명



‘조코’와 나는 텍사스 남부에 있는 ‘샌안토니오’라는 도시에 닿아 일박했습니다. 그날 밤 ‘조코’의 코고는 소리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의 별명 “조(趙)코!”를 낱게 한 코답게, 그 주먹덩이 만한 코에서 터지는 굉음(轟音)은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코골이는 매일 밤 되풀이 되는 일이었지만, 그날 밤 따라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슬그머니 호텔을 나왔습니다. 아니, 호텔은 무슨 호텔!... 정확히 말하지요, 모텔이었습니다.

‘조코’는 서울을 떠나며 ‘왕초’ 장기영한테 해외출장비를 두둑이 받아왔을 직전만, 그의 돈 씹씹이는 하도 짚던 지라, 근 열흘 남짓 밤만 되면 둘은 모텔 신세를 졌습니다. 돈에 관한한 그 코값을 못 한 것이지요. 그 점, 내겐 불만이었지요. 신문기자를 해서 일까, 아니면 대학시절부터 설까... 어느 도시를 가건 나는 지금도 밤에 무척 익숙합니다.

코를 쿵쿵 대지 않아도 어느 골목 어느 모퉁이를 돌면 무슨 술집이, 또 어느 규모의 술집에, 어떤 급의 작부들이 포진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샌안토니오에 들어서면서 나

추모기(下)



김승웅

- 본회 회우
- 전 시사저널(창간)편집국장
- 전 문화일보 워싱턴,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는 ‘조코’한테 귀뜸을 하지 않았지만, 그 도시의 길거리에 한국계 여성들이 미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본능적으로 캐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바지만, 그곳 샌안토니오에는 미군 부대가 위치해 있

어 (당시)동두천 기지촌에서 주한미군과 결혼 후, 남편의 귀국 조치에 따라 미국 땅에 함께 발을 들인 한국인 처(妻)들이 많은 곳으로, 그들 거개가 끼리끼리 만나 밤마다 예전 동두천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었습니다.

좀 시골벽적인 술 집 문을 밀고 들어간즉 아니나 다를까, 너댓 명의 한국 여인들이 눈을 번쩍 뜨며 나를 주시했습니다. 양키 손님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까짓 것 대수랴... 한국 여인들과 나 사이에 몇 차례의 눈짓과 레이저가 오가고...이어 20분이 채 못 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나와 여인들은 합석, 이어 부어라 마셔라로 이어졌습니다.

술이 얼큰해지니 혼자 방에 잠들어 있을 ‘조코’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초청대학(미네소타 마칼레스터 대학)으로부터 받던, 당시 주급(週給) 80달러의 퍼디엄(장학금)도 술값으로 다 바닥이 났고, 따라서 더 이상 술을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 된지라...할 수 없이 ‘조코’가 잠들어있는 모텔 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내가 직접 전화를 걸지는 않고 합석한 여인 가운데 목소리 애교가 월등한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조코’가 놀래 자빠질 것 아닙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張基鳳사장과 청와대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종군기자

단 간사 선거에서 간사로 뽑혔다. 간사라 해봤자 별로 하는 일이 없었다. 대변인과 기자단의 다리역할과 간혹 본관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면 李厚洛 비서실장에게서 차대통령의 춘지(실은 춘지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아 기자실로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청와대 출입이 익숙해질 무렵인 어느날 나는 이층 사장실로 불려 올라갔다.

“you 차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게. 독대라야 하네”

張基鳳사장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이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과의 면담, 그것도 독대라니 무거운 마음으로 편집국으로 내려왔다.

申範植 대변인은 문공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나오는 생소한 姜尙郁 대변인이라 일을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다. 金鍾信 공보비서관의 도움도 있고 해서 독대는 이루어졌다.

독대가 이루어진지 얼마 안되어 다시 사장실로 불려 올라 갔다. 사장은 나에게 네모꼴의 흰 봉투 편지를 내보이며 자랑했다. 발신자란엔 WHITE HOUSE

HENRY KISSINGER라고 타이핑되어 있었다. 張사장은 KISSINGER와 하버드 대학동창이었다. 사장은 나보고 대통령과의 재독대를 추진하라는 분부였다. 재독대 교섭은 그리 저력 이루어졌다.

봄철이었다. 대통령의 호남순시에 나는 “풀”기자로 지명됐다. 전용비행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날 따라 봄비가 내려 대통령

전용 열차로 변경됐다.

기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경호실에서 전용열차를 고집한 것은 차대통령이 일전 헬리콥터로 동해지구 전투사령부를 시찰하는 길에 전용1호기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강원도 산악지대 밭에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나는 “풀”기자로 2호기를 타고 갔는데 앞서 가던 1호기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힘 없이 밭에 내려 꽂혔다. 2호기에는 申東寬경호실 차장이 타고 있었다.

불시착한 1호기와는 좀 떨어진 곳에 착륙해 뛰쳐나가 보니 차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담배를 물고 경호실장 朴鍾圭에게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1호기 조종사는 공군중령으로 엔진에 불이나자 엔진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활공 끝에 밭에 내려 꽂혔던 것이다. 조종사의 침착한 대처가 대형사고를 막았던 것이다.

차대통령은 총무수석비서관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지시했다. 총무수석비서관은 가방에서 봉투와 수표 묶음을 꺼내었다. 수표를 세는데 20만원으로 보였다. 돈 봉투는 1호기 조종사에게 주어졌다. 그때는 은행수표 1만원권이 대부분이었다. 불시착 사건을 보도관제하라는 李厚洛비서실장의 말에 헬리콥터 사고는 보도할 수 없었다.

빗속의 호남평야를 달리는 전용열차는 쾌적했다.

姜대변인은 “풀”기자인 나를 대통령집무실간으로 안내했다. 차대통령과는 가벼운 대화가 계속됐는데 갑자기 “정기자 張基鳳 사장 귀가 좀 먹은것 아닌가”고 물었다. 나는 아차 싶어 “약간 가는 귀 정도입니다”고 둘러댔으나 “아니야 동문서답(東問西答)이던데”

이것으로 張사장이 내심 바랐던 문공부장관의 기대는 물거품이 돼버렸다.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사장실로 올라가서 전용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면서 ‘보청기를 끼지 않았습니까?’고 물었다.

張사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몇차례나 고추먹은 소리를 내며 입맛을 다셨다. [圖]

니까! 열흘 남짓 조수(助手) 짓 하느라 ‘조코’한테서 당한 압박과 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코’를 극복하는 건 당시 그에 비해 ‘새까만’ 쫄병 기자였던 나로서는 오직 그 방법 뿐이었구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한참 꿈속을 달리다 웬 야릇한 한국여인의 전화를 받은 ‘조코’가 얼마나 놀랐을까?

나이도 한창 창창한 마흔 다섯이겠다... 왜 갈증이 심하지 않겠는가! 아니나 다를라, ‘조코’가 전화로 내지르는 “얏호!” 비슷한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성공이지요. 방으로 와 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다섯 명의 여인들이 저마다 사들인 술병을 들고, ‘조코’가 기다리는 모텔 방으로 진격했습니다. 다섯 명의 암 양(羊)떼를 몰고 개산장군처럼 입성하는 나를 보더니 ‘조코’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 쳐다 보더군요. 장장 열흘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이어 침대에에서 모두들 다리를 째 째 벌린 채 2차로 술을 퍼마셨습니다.

텍사스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구요. 기자직(職)을 좀 미화(美化)해 표현하자면 ‘필마단기(匹馬單騎)’입니다.

말 그대로 한 필 말위에 올라 무기라고는 달랑 창(槍)하나 들고 주군(主

君) 유현덕의 비실비실한 외아들 아두를 구하러 1백 만의 조조 대군 속을 누비던, 삼국지의 쾌걸 상산(常山) 조자룡이라 여기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기자의 경우 창 대신 불펜을 들지요. 필마단필(匹馬單筆)... 써 놓고 본즉 거둬 맘에 쏘~옥! 드는 표현이 됐지만, 위 ‘필마단필’이라는 말은 기실 40년 전, 내가 ‘조코’ 조세형을 처음 만났을 때 만들어 낸 말입니다.

‘조코’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전형적인 무골(武骨)이었습니다. 1백 80cm가 넘는, 기자치고는 너무도 후리후리한 키에, 파이프를 빼꼼대며 나타났습니다. 그 천연덕스러움이 그 시대 당시 워싱턴 언론가에서 필명을 날리던 뉴욕 타임스의 대기자 제임스 레스턴을 흠뻑 흥내 낸 듯 싶었습니다.

1969년 늦가을, 6개월 한국일보 견습을 막 마치고 외신부에 배속된 내 앞에 ‘조코’는 그토록 천연덕스럽고 자랑스런 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전국적 유명인사가 되어 필명을 날리던 중 모친상을 당해 일시 귀국 한 것입니다.

기자의 ‘필마단필’ 숙명은 무골의 ‘필마단기’ 숙명과 똑 같지요. 주군(主君)을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 명운(命運)이 바뀐다는 점에서 특히 같습니다. 공손찬 휘하의 조자룡이 한갓

후미(後尾)나 지키는 비장(裨將)으로 머물다 주군 유현덕을 만난 다음에야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함께) 오호(五虎)대장의 반열에 오르듯, 천하의 ‘조코’ 역시 왕초 장기영을 만나지 못했던 들 분명 공손찬 휘하의 조자룡 끝에 머물렀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확신은, 빼어난 명장이 주군의 생사와 명운(命運)을 같이하듯 기자역시 주군이 바뀌면 함께 자리를 뜬다는 점입니다. 미국서 나를 데리고 카터네 땅콩 농장을 돌던 ‘조코’는 이듬해(1977년) ‘왕초’가 돌아가시자 얼마 있다 편집국장이 되더니 2년 후엔 그 마저 버리고 성북구 국회의원으로 결국 변신하고 맙니다.

그리고 보면, 그날 밤 샌안토니오에서 보낸 텍사스의 화끈한 밤은 내가 본 언론인 ‘조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다. 내가 귀국 후 반년쯤 지나 ‘조코’는 편집국장이 되어 편집국에 얼굴을 나타냈지만, 내 발로 국장실을 노크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와 미국서 쌓은 즐겁고 유익했던 교분이 남한에 자칫 개인적인 친분과시로 비치거나, 하다 못해 내가 평소 출입하고 싶었던 정치부 외무부 출입기자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잘못 악용(惡用)될까 봐 저 스스로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치부 외무부 출입기자로 바뀐 것은 그 ‘조코’가 편집국을 떠난 후 그 후임 편집국장이 되신, 옛 그제 인사동에서 서예전을 여신 권혁승 편집국장 시절이었으니, 나의 위 증언(?)에 하등 거짓이 없음이 입증 될 것입니다.

나는 병적으로 솔직한 편이거든요. 편집국장이 된 왕초는 이따금 지면에 “편집국장으로부터의 편지”라는 글을 썼지만 예전처럼 힘 넘치고, 스피디하고, 재미있는 글은 벌써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나친 비약일까, 주군 ‘왕초’를 잃은 ‘조코’는 평소의 글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대목관련...조코 선배여, 용서하십시오! 기자는 느낀대로 쓸 뿐이요!) 2년 후서울 성북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변신할 것을 대비한 듯 글 하나하나가 학업에 뜻을 둔 글이 아니었습니다.

거둬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 후 평소 ‘조코’다운 화통한 글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안 읽은 게 아니라, ‘조코’가 도시 글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구요. 당시 그의 나이 48세. 언론인 ‘조코’는 그 때 이미 죽었습니다.

정치가 뭐 길래... 지금도 나는 그게 슬프다. [圖]



서울시와 함께
일어서자!

서울 시민이 함께 지키면 **신종플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종플루 종합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발열감지기**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이렇게 예방하세요! ● 신종인플루엔자 이렇게 이겨내세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신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7.8°C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료거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신종플루종합대책상황실 02)6361-3004~3014,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관련문의 : 국번없이 120



김성진 회우 별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변인과 문공부 장관을 지내고 동양통신과 연합통신 초대 사장을 역임한 김성진 회우가 78세를 일기로 지난 9월 17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고인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본회의 언론인장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고 김성진 회우

장례를 치렀다.

본회 조창화 회장 등 본회 회우들을 비롯해 각계의 조문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장례는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서 발인해 성당에서의 추모미사를 마치고 화장을 한 뒤 유골은 충북 진천 선영에 묻혔다.

당신이 함께 한 有故

— 金聖鎭형을 내 가슴에 묻고 와서

1979년 10월 27일 새벽, 중앙청 기자실 철관에 〈有故〉라고 큰 글씨를 쓴 그 이는 당시 정부 대변인인 문화공보부 장관이었고 故人은 대통령이였다 30년이 지난 2009년 9월 17일 새벽에 그 이가 고인이 됐다는 부음을 듣고 나는 내 가슴에 〈有故〉라고 새겼다.

고인은 생전에 네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술회 할만큼 死神과 더불어 살아왔고, 생의 후반기엔 몸에 칼 질을 여러 번 당하고 병원 출입이 잦아서 내가 〈5백만불의 사나이〉라고 불렀었다. 만일 한번만 더 칼을 댄다면 영화속의 주인공인 〈6백만불의 사나이〉처럼 영생하는 로봇인간이 될 터이니, 그 선에서 머물러 달라는 나의 염원을 담은 농담이었다.

이번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16일간에는 수술이 없긴 했지만 다섯번 째 맞은 불운을 극복 하진 못했다.

그 이는 참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직업과 직장을 가졌었다. 대충 꼽아도 군인, 언론인, 관료, 외교관, 경제인 저술가 등 등 맹렬 활동가였다. 반세기가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 많은 영광과 시련이 교차하고 엉켜져 있었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본인이 자서전을 펴낸 적이 없고 남이 평전을 써서 소개하지도 않았기에, 나는 그 이를 잘 모른다. 그 이가 당국자로 있었을 때도 공적으로 맞부딪친 적은 없다. 기껏 여러 사람과 더불어 운동을 같이 하거나 밥을 같이 먹은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핏줄에 못지않은 학연 때문에 60여년을 형과 아우사이로 지내왔다. 해방후 신설된 중학교에 입학 하고보니 선배의 태반은 이북에서 피란온 거구들이 많았다. 〈뽕빠이〉란 별명을 가졌던 3년 선배인 그 이는 농구와 송구의 주전 선수였다. H중학교의 송구 결승전에서 양교의 전교 응원생까지 포함돼 난투극이 벌어졌고, 최필립 주장과 뽕빠이형의 무훈담은 재학증명서처럼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신동호

- 본회 회우
- 전 스포츠 조선 사장
-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 이와 처음 대면한 것은, 간만에 모교 후배가 올챙이 기자로 뽕혔다고, 선배기자 서너명이 화식하는 자리에 불러준 이래로 회사나 출입처가 달랐어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언론계의 선배는 대여섯에 불과했지만 그 이가 가장 친화력이 있고 리더십이 뚜렷해서 언제나 좌장이었다. 평 기자로 취재를 잘하고 문장력이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찍

이 관리직인 정치부장으로 승진한 걸 보면 위 사람의 신임을 얻는데 탁월하고 아랫사람을 따르게 하는 재주가 뛰어났던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이 케이프커내버럴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워싱턴 특파원중 유일하게 동승 취재를 담당한 것이 대변인으로 발탁된 동기라고 알고 있다. 말씨가 느리고 달변이 아닌데도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듯싶다. 그런데 10·26 시해사건 당일 낮에 삼교전에서 귀경할 때, 헬리콥터를 같이 타고 올라 가지는 대통령의 분부를 완곡하게 사양해서 궁정동 만찬을 피할수 있었던 것은 그 이가 천시(天時)도 볼 줄 아는 예지가 있음이다.

이 사건이 그의 네번 째 위기 탈출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까지 〈입〉으로 10년을 버틴 것은 남을 대변 할지언정 내 말은 삼간다는 신조 때문일 것이다. 내가 함부로 입을 열면 생존자가 더 많은 이 세대에서 어찌 견뎌나겠느냐며 비화 공개나 회고록 쓰기를 거부했다. 설득의 명수였고 후진을 보살피는데 신경을 썼다. 퇴역후는 잡문을 쓰지 않고 연구와 저술에 몰두해서 전문연구서를 몇권 출판했지만 내가 읽어도 모르는게 많았다.

그 이는 일을 벌이고 꾸미기를 좋아했다. 장관으로 있을 때, 언론계 유지를 모아 70년대말에 서울언론문화클럽을 만들었고 80년대 초에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서울언론재단을 육성했다.

83년부터 4년간 몸소 이사장을 맡기까지 했으며 그 뒤를 내가 이어받아 10여년 버티다가 모집단의 해체로 금세기

김재봉 회우 별세 언론인장 엄수



고 김재봉 회우 언론인장에서 조창화 회장이 조사를 읽고 있다.

매일경제 전 회장 김재봉 회우가 9월 1일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 본회는 김 회우의 장례를 유족과 협의해 언론인 장으로 거행했다. 9월 3일 오전 7시 거행된 고 김재봉 회우의 언론인 장에는 조창

화 회장과 신동철, 문명호, 홍원기 부회장, 조성국 회우, 정운종 행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언론인장은 정운종 위원장의 고인 약력 보고와 조창화 회장의 추도사에 이은 분향, 헌화로 진행됐다.

추도사

故 金在鳳 회우께서는 이 나라 경제기자의 우뚝한 봉우리 셧었습니다. 60년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를 시발로 매일경제 신문의 경제부장→편집국장→社長→會長을 역임하시는 동안 항상 한발 앞서가는 금융 기자로 후배들을 독려하시고 이나라 경제를 걱정하셧습니다.

매경의 소공동 시절 김 선배님께서 편집국장으로서 각 금융기관, 경제부처의 기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매경기자를 찾아 취재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그 당시 금융 기자실의 김희중 매경 기자는 김재봉 선배의 전화를 받을때마다 다음날 신문의 TOP을 썼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YTN의 감사로 있는 김희중 기자는 「한은 총재실에 가 이런 것 좀 물어봐」하는 故人의 指示를 이행만 하면 다음날 TOP은 바로 자신이 쓴 기사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에 빠르고 취재지시를 베풀같이 내리는 항상 일선기자이셨습니다. 만년 투병하는 과정에서도 “인간답게 살아가는길”이란 독특한 잡지를 만들어 지금도 많은 독자들의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80은 평균 수명이라는데 치열하게 사신 선배님의 육신은 지치셧던것 같습니다.

곳곳하게 투병하시고 조용히 떠나신 선배님, 많은 동료, 후배들의 칭송과 그리움을 안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 창 화

들어 해산했다. 그 이로부터 이어 받은 것에는 모교 총 동창회의 회장직이 있다. 그 이는 80년대에 제 6대회장으로 8년간 3기를 연임하며 직능 직업별 동문회를 조직하는등 동창간의 조직을 활성화했으며, 언론계와 고교동창회로서는 처음인 언론동문회도 그 이의 창작품이다.

금세기 들어 모두가 일정하게 나가는 곳을 잃고 허전하고 쓸쓸하게 지날 때, 종으로 횡으로 엮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게끔 주선하고 주재했으며, 그 덕으로 한 달에 서너 번은 그 이와 오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혼자 신바람이 나서 듣는 사람이 두세 번 들었던 얘기를 되풀이 할 때면, 내가 가로 막아 말을 자주 끊어 조정한다. 그럴때면 멋쩍어 하며 “자네는 奇人이야”라고 둘러댄다.

흥허물없이 농이나 이른바 풍코를 퍼부어도 웃음을 잔뜩 머금은 실 눈이 얼굴 전부를 가린다.

이런 양반이 지성에 덕성을 갖춘 모습을 보여준다고 느낀다.

지난 9월 7일의 월례 점심 모임에 그 이가 결석하여 3시경 후배 한 친구와 같이 서울대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항암치료를 통원하며 받는 중에도 기력회복을 위한 보양식 섭취때도 동반했었기에 큰 탈 없겠지 했었는데 간호사가 응급처치하기에 바빴고, 환자는 목불인견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 이와 마지막 대면임을 직감했다. 그 이튿날 아침, 그 이로부터 어제 찾아 주어 고맙고 못알아 봐서 미안하다는 마지막 인사 전화를 받았다. 뒤 끝을 흐리멍덩히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의 나타남이다.

17일 빈소에서 재회 했을 때, 영정의 모습은 환히 밝은 웃음이었다. 위패는 〈安東金氏 淸谷 石泉 聖鎭 바오로之位〉로 쓰여있었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경추 다쳐 입원 치료



★ 김윤덕 회우 = 8월 14일 길에서 넘어져 4,5번 경추부위를 다쳐 서울대 병원에 10일, 원광대 산본 병원에 10일간 씩 각각 입원 치료를 했다. 현재 물리치료 중.

‘문학과 사회’ 주제 강연 개최



★ 남시욱 회우 = 광화문문화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남 회우는 ① 9일 오전 7시 반 세종문화회관에서 작가 이문열씨를 초청해서 ‘문학과 사회’란 주제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② 9월 25일에는 서울 로얄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강포럼(이사장 김용원)의 초청을 받아 ‘DJ 이후 한국 정치’란 주제 발표를 했다.

‘동해 이름 되찾기’ 칼럼 기고



★ 문명호(본회 부회장) 회우 = 9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동해이름 되찾기’ 국민 모두가 홍보대사 되자”란 칼럼을 기고해 9월 3~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5회 동해지명과 해양지명 국제 세미나’에서 해양지명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국민 모두가 ‘동해 지명’ 홍보인이 되자고 주장했다.

喜壽맞아 대한언론인 회원들과 오찬



★ 박현태 회우 = 9월 18일 喜壽를 맞아 김영범 김철민정기 오건환 조재린 조창화 회원등과 오찬.

‘北核과 한미공조’ 주제 세미나



★ 봉두완(〈사〉한미클럽 회장) 회우 = 16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북핵시대와 한미공조”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국제 판화 사진 아트 페어’ 개최



★ 안병훈(기과랑 대표) 회우 = 9월 12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서울 국제 판화 사진 아트페어 2009’ 개막 테이프를 끊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



★ 어경택 회우 =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새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어 회우는 새로 위촉된 54명의 중재위원중 서울 중재 5부 중재위원이다.

언론인회 편집위원들과 오찬



★ 오전식 회우 = 9월 8일 본회 편집회의의 참관 후 편집위원전원과 대한언론인회 집행부 전원에게 오찬을 베풀었다.

장남 美 코넬대 경제학박사 취득



★ 윤익한 감사 = 지난 8월 장남 尹載皓(현 한국은행 과장)가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음.

‘백인백상’ 사진전 개최



★ 윤주영(전 문공부 장관) 회우 =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백인백상-600자에 담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연다. 저명인사 100인이 직접 쓴 600자 에세이는 사진집에 수록했다.

‘주택시장’ 정기 세미나 개최



★ 이태교(한국부동산포럼 회장) 회우 = 9월 23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주택시장, 새로운 시작인가?’란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월간 조선 10월호에 기고



★ 이형균(본회 부회장) 회우 = 월간 조선 10월호에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의 비망록을 통해 박정희 서거 30년 만에 처음 공개하는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에 자주국방을 강조한 비화를 기고했다.

한일문화 교류 위원장 위촉



★ 정구중(동서대 일본문화센터 소장) 회우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5일 제3기 한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9월 11일 오후 6시부터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이연홍(흥국생명빌딩 3층)에서 게이오 대학 고바야시 요시아키 교수를 초빙해 “일본 총선결과와 의미와 일본정치 전망”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



★ 정재도 회우 = 9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원로한글학자로 바른말과 한글보급에 대한 공을 기리는 인터뷰 기사가 전면 게재됐다.

‘실버 TV’와 업무제휴 협약



★ 정재형(본회 명예회장) 회우 = 9월 23일 상임대표로 있는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과 공익채널 ‘실버 TV’(대표 노태훈)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동 TV 편성정책자문 위원장에 추대됨.

백령도 해병대 기지 방문



★ 조성국, 오전식 회우 = 9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기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위문 격려했다.

간호사 30여명 자택초대 파티



★ 지연흥 회우 = 8월 초 아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0여명을 집으로 초대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옥수수 파티를 열어 대접하고 옥수수를 선물하기도 했다.

한국 소비 경제신문 편집 고문



★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 회우 = 최근 한국소비경제신문(giljabic@naver.com) 편집고문에 위촉됐다.

2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대로 쓰라는 고인의 유언이었고, 3일의 가족장으로 간소히 하고 비석이나 영정도 준비 말라는 중환자실로 이송되기 3일전 유언이었던다. 영정을 마련한 것 외에는 장의는 그대로 집행되었다. 언론인회장(葬) 연합뉴스사장 고교동창 회장등 논의는 잠재워졌고, 텔레비전에서도 첫날 뉴스시간에 밀줄 자막에 흘렸을 뿐이다.

엄청난 조문무드와 검은 색 뉴스의

홍수속에 죽음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일으켰던 지난 몇 달 동안의 관성때문인지 죽어서도 인격의 격차는 지위의 높고 낮음과는 무관하며 역시 정승이 죽지 않고 그 집 개가 죽어야 야단법석이라는 옛말도 떠오른다.

19일 이른 아침, 한강성당에서의 영결식은 무종교인인 나도 엄숙하고 경건히 형을 보내는 마음을 갖게 했다. 고인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4대종교가 경연

하는 국가의식이 코미디임을 재확인시켜준다.

불과 이틀뿐인 장례기간이었지만, 18년전 그 이가 세번째 위난을 맞아 미국 피츠버그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고 재생의 기쁨을 누릴 때, 함께 했고 도왔던 많은 분들이야말로 수 십만 수 백만 인파보다 더 뜨겁고 소중하다고 느꼈다. 당신은 가고 <you go>(有故), 다음은 내 차례요 우리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찾길에서 내려서도 1시간쯤 험한 산길을 올라 판서를 지내신 선조들의 평분 묘석이 깔린 선영앞에 섰다. 生於鎭川이라는 고향선영에 묻히러 들어온 그 이를 死居龍仁 출신인 나는 “당신을 내 가슴에 묻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수박보다 작은 백자 유골 항아리에 담긴 그이 위에 흙과 국화 한 송이를 덮었다.

돌아오는 길은 가을 하늘 공활하고 높고 푸르렀지만, 내 가슴은 어둡고 텅 비었다. [문]

UPF 포럼 참석 중국일대 탐방



★ 최귀조(본회 이사) 회우 =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 단둥, 여순 등에서 열린 UPF포럼 회장단 특별세미나에 참석한 뒤 귀로에 압록강, 고구려 유적지, 백두산, 여순 안중근 의사 순국지 등을 탐방했다.

성당순회 특강



★ 최희조(본회 편집위원) 회우 = 가톨릭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의뢰로 7~9월 10회에 걸쳐 1회 2시간씩 '미디어와 사회생활' 주제로 성당순회 특강.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차원에서 뉴미디어의 동향 등에 관해 강의하고 미디어법을 해설.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치료 중

★ 한기호 위원 = 9월 14일 오후 경북



궁 부근에서 택배 오토바이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고 오른손이 탈골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중

'에세이 21' 수필자 등단패 받아



★ 한영탁 회우 = 9월 17일 오후 2시 서울 YWCA회관에서 열린 수필전문지 '에세이 21' 창간 5주년 기념식에서 수필자 등단패를 받고 기획위원으로 추대됐다.

KBS 시청자 위원 위촉



★ 호천웅 회우 = KBS 제 20기 시청자위원회에 위촉됐다.



어린이 재단에 임직원 반납 급여 후원



★ 고태용(한국언론재단 이사장) 회우 = ① 9일 사회복지재단 어린이재단과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협약을 맺고 올해 임직원이 반납한 급여 8,000여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후원했다.(사진 왼쪽부터 김문오 언론재단 기금이사, 서옥식 사업이사, 고태용 이사장, 김원진 어린이재단 회장직 무대행, 선상식 언론재단 연구이사, 임신혁 어린이재단 모금사업본부장, 정진철 언론재단 기획조정실장) ② 4일 오후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36회 한국언론재단(KPF) 포럼을 개최했다. ③ 9월 25일에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무료신문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권혁승 회우 고향에 '사모정 공원' 기증 화제



권혁승 회우(사진)가 강원 강릉시 경포동 죽헌저수지 아래에 있는 속칭 '핸다리' 마을에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는 공간으로 '사모정(思母亭)' 공원을 조성해 강릉시에 기증해 화제다. 권회우가 사비를 들여 조성한 이 공원에는 우리나라 전통 형태로 지은 정자를 비롯해 자신이 쓴 '고향길'과 한국예술원 회원인 강릉출신 소설가 신봉승씨의 '어머니', 수필가이자 시인인 자연희씨의 '아버지' 등 3개 작품을 새겨 넣은 시비가 들어서 있다.

권회우는 건립문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소를 몰고 나무지게를 지고, 10리나 떨어진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꾸던 고향의 옛모습은 사라졌으나 핸다리와 성황당 앞길을 오가던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아직도 반겨준다"며 회수(77)의 나이가 되어도 애잔한 기억 속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회우는 "정자가 세워진 마을에서 태어나 강릉상고(현 강릉제일고)를 다녔다. 태어난 집은 저수지로 수몰됐으나 선산이 있어 매년 고향에 성묘하러 간다"고 말했다.



사모정 준공 테이프를 끊는 관계 인사들.



남원 춘향 패션쇼 사회 ★ 이보길(본회 편집위원) 회우(사진 오른쪽) = 9월 1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 관광전'에서 남원 춘향 패션쇼의 사회를 보았다.

◀ 전 화 번 호 번 경 ▶

★ 윤기병 회우 = 010-8839-1177
★ 최상목 회우 = 010-5243-4736

◀ 주 소 번 경 ▶

★ 고수균 회우 =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 아파트 13-1008 (우) 140-751 전화 : 02-3785-0383

★ 김광섭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관교동 513 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 A 1108-102 (448-532)

★ 김병모 회우 =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2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124-1401 (우) 122-200 휴대전화 010-5358-6024

★ 김주철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얄팰리스 A동 808호 (우) 463-958

★ 이상우(李祥雨) 회우 =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삼보A 302-1603 (우) 471-734

★ 이석희 회우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을 진암 4리 166-52 (우) 467-905

◀ 회 비 납 부 ▶

곽찬호 김광섭 전민조 안중하 이세환 이창호 위상욱 호현찬

꿈을
키우는 사랑
LG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를 향해 꿈을 키워가는 음악영재들에게
LG는 세계적 수준의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 학교

세계적인 음악교육의 명문 줄리어드 음악대학과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으로 널리 알려진 링컨센터와 LG가 함께 설립, 운영하는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 학교'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국내교수들의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링컨센터 교수들의 레슨과 협연콘서트 등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꿈들이 세계적인 음악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LG가 함께하겠습니다

LG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LG

